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 체 사 상 으 로
튼 튼 히 무 장 하 자 !

로동신문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89호 【루계 제23406호】 주체100 (2011) 년 3월 30일 (수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몽골 대통령과 로씨야 련방이민국이 친서와 선물을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쥐 몽골 대통령이 친서와 선물을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보내여온 친서와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대통령대외정책고문인르. 뿌레브쑤렌 몽골 대통령특사가 29일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로씨야 련방이민국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보내여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아나똘리 꾸즈네쪼브 로씨야 련방이민국 부국장이 29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선군체육열성자회의 참가자들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선군체육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이 29일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은 회의참가자들은 일찌기 독창적인 체육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이 땅우에 인민체육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주체체육의 강화발전과 더불어 빛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되새기며 경애하는 수령님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나라의 체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선군조선의 존엄과 필승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쳐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531호 주체100 (2011) 년 3월 29일

개성시에 모범교육시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교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는데서 모범을 보인 개성시에 모범교육시칭호를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사 설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자

올해를 경공업이 용을 쓰는 해, 인민들이 경공업의 덕을 보는 해로 만들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인민경제의 모든 전선에서는 경공업을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운 당의 의도대로 인민소비품생산을 위한 원료, 자재보장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경공업부문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

인민소비품생산에서는 원료, 자재보장이 기본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당의 령도밑에 마련된 현대적인 경공업기지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대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있다. 경공업발전을 힘있게 뒤받침해줄수 있는 기간공업의 위력도 대단하다. 이런 잠재력에 기초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나가자면 소비품생산을 위한 원료, 자재보장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민헌신의 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인민소비품생산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올해에도 정방산종합식료공장, 사리원기초식품공장, 함흥모방직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경공업공장들을 찾으시며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고계신다. 경공업공장들에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인기상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원료, 자재를 충분히 보장해주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과 뜻을 같이하는 참된 전사들이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인민소비품생산의 앙양을 위하여 뛰고 또 뛰여야 한다. 경공업공장들에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는 여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대고조령도업적을 빛내이는 길이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이 사업을 일관성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자욱이 어려있는 경공업공장들을 최첨단수준으로 꾸리며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화하기 위한 설비,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인민소비품생산과 련관되여있는 단위들에서 자기앞에 맡겨진 과업을 철저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주체화의 포성을 더 높이 울리며 비날론, 스프, 인견실을 비롯한 화학섬유를 많이 생산하여 방직공장들에 넉넉히 대주어야 한다. 가성소다, 탄산소다, 염산과 같은 기초화학제품과 합성수지, 물감, 칠감생산도 늘이고 종이와 소금도 많이 생산보장하여 경공업공장들이 만부하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경공업공장들에 여러가지 규격과 재질의 철강재와 유색금속가공제품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전력공업부문과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전기와 석탄을 중단없이 잘 보장해주며 철도운수를 비롯한 수송부문에서는 필요되는 물동량을 생산지까지 제때에 실어나르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무역부문에서는 우리가 생산하지 못하거나 적게 생산하는 원료, 자재를 해결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이 정상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기 지방의 흔한 원료, 자재로 식료가공품, 일용품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모든 지방들에서는 산과일, 산나물을 비롯한 자연원료를 많이 거두어들여 식료공장들에 보내주기 위한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야 한다. 다수확우량품종의 목화를 심어 목화솜을 대량적으로 생산하며 누에고치생산을 더욱 늘여야 한다. 원료원천을 적극 개발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자체의 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려 지방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야 한다.

경공업원료를 보장하며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려야 한다.

중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활필수품직장, 작업반들을 더 잘 꾸리고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질좋은 생활필수품들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려 인민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누구나 작은것에서 큰것을 볼줄 아는 깐진 일솜씨로 자그마한 폐기물, 폐설물까지 모조리 회수, 선별, 리용하여 소비품생산을 늘이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소비품생산을 위한 원료, 자재의 보장과 효과적리용에서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일군들은 인민소비품생산을 위한 원료, 자재보장에서 자신의 당성, 혁명성, 인민성이 표현된다는 자각을 가져야 한다.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고 한가지 자재를 대주어도 쓸모있고 효과적인것으로 되게 하기 위해 늘 머리를 써야 한다. 일군들은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주는것을 철칙으로 삼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2. 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일군들처럼 경공업발전에 필요한 원료생산을 주체화, 국산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은 원료, 자재를 극력 절약하고 인민소비품생산을 최대로 늘이기 위한 사업을 깐지게 해나가야 한다. 적은 로력과 원료, 자재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여 원가를 낮추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경공업공장들의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쳐 같은 원료, 자재를 가지고 질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보장을 선행시키는 원칙에서 경제작전과 경제조직사업,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며 끝장을 볼 때까지 근기있게 내밀어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모든 일군들이 인민소비품생산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경공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사상과 의도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수지, 목재, 농산원료, 화학, 금속자재를 비롯한 경공업원료와 자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려는 당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모두다 자기 초소를 전선으로 여기고 더 높이, 더 빨리!

라빈과 발전기본체조립을 성과적으로 끝냈다

희 천 1 호 발 전 소 건 설 장 에 서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인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또 하나의 혁신의 소식이 전해졌다.

희천1호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김응철소속부대의 군인들과 수력설비조립사업소의 건설자들이 얼마전에 압력철관로조립을 성과적으로 결속한데 이어 또다시 발전소건설에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인 타빈과 발전기본체조립을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발전소건설에서 이룩된 이 자랑찬 성과는 말은 대상공사를 하루빨리 끝내여 위대한 장군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릴 한마음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결사관철의 정신이 낳은 자랑찬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희천발전소 건설자들은 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속도를 창조하여 선군조선의 기상을 다시한번 만방에 높이 떨칠것입니다. 》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방대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불이 번쩍 나게 해제낄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과감한 공격전을 벌리였다. 현장지휘부에서는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대상기관들과의 련계밀에 발전설비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발전소건설에서 희천돌격대의 영예를 떨쳐온 조선인민군 김응철소속부대의 지휘관들은 완공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길 불같은 일념을 안고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건설자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한편 부대에서는 먼곳에서 굽은 판과 회리관, 고정자와 회전자 등 육중한 발전설비들을 날라와야 하는데 맞게 도로구간들에 대한 복구와 자동차들의 정비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운전사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방대한 량의 발전설비들과 부분품, 부속품들을 안전하게 현장으로 운반해옴으로써 조립전투를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였다.

수력설비조립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조립기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였다. 그들은 각종 지구들과 기공구, 측정계기들을 창안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면서 기술협의회를 수시로 조직하여 조립에서 나서는 어려운 기술적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갔다.

사업소에서는 발전설비들이 들어오는데 맞게 조립전투를 립체적으로 벌리였다.

설비조립1직장의 건설자들은 조립기일을 앞당기기 위해 현장에 회전자조립장들을 꾸려놓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회전자조립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또한 설비조립2직장의 건설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회전자축에 대한 정비와 품이 많이 드는 철심쌓기작업을 기술적요구대로 하였다. 사업소의 건설자들은 종래의 공법을 타파하고 지상에서 확대조립하는 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수차부분조립을 불과 보름동안에 끝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희천1호발전소의 타빈과 발전기본체조립을 성과적으로 끝낸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지금 신심과 락관에 넘쳐 공사장마다에서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기세좋게 전진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정 성 일

탄광들에 많은 채취설비를

회 령 탄 광 기 계 공 장 에 서

회령탄광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채취설비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1월과 2월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탄차와 권양기, 긁개사슬콘베아 등 채취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탄광들에 보내주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초소들을 지켜 로력적위훈을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공동사설과업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생산자대중의 드높은 열의에 맞게 채취설비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또한 직장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전투지휘를 능숙하게 하고있다. 공장참모부에서는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켜나가기 위한 당면목표와 전망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하나하나 모가 나게 수행하는데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탄차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활기를 띠고 벌어지고있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석탄생산을 함께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능률적인 적재기와 뽐프를 새로 제작하고있으며 설비들의 질을 개선하는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직장들을 맡고나간 일군들은 들끓는 일터마다에서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동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는것과 함께 생산에서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고있다.

공장의 일터마다에 총공격전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공장에서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소재생산을 확고히 앞세우고 가공을 적극 따라세우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있다. 주강직장, 주철직장을 비롯한 소재생산을 맡은 단위들에서 원료를 넉넉히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 단위들에서는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고 기계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여 필요한 소재를 규격별, 재질별로 제때에 생산하여 여러 직장들에 보내줌으로써 채취기계와 대상설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특히 단조직장의 로동자들은 형단조비중을 높여 가공공정에서 품을 적게 들이면서도 제품의 질을 높이게 하고있다.

가공직장들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깐지게 하고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가는데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직장들에서는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탄차와 권양기, 쇠동발 등 채취설비생산을 늘이는데 힘을 넣고있다. 탄차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직장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제작한 탄차함가조립기와 탄차방틀가조립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탄차생산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보장단위들에서도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특파기자 리 성 호

모 든 힘 을 인 민 생 활 대 고 조 에 로 !

경공업제품생산에서 혁신 원산시의 경공업공장들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원산시안의 경공업공장들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질좋은 경공업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이 부문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인민에 대한 참된 복무정신을 지니게 하는것입니다. 》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안의 경공업공장들에서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히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과 원산유리병공장, 원산철공생산협동조합을 비롯한 시안의 경공업공장들에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는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매월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도의 하나를 기술개건에서 찾고 사출기들을 비롯한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제품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고있다.

원산유리병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인민들의 수요가 높은 유리그릇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열의를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공장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새로운 유리용해로를 건설하여 유리그릇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원산철공생산협동조합의 종업원, 기술자들은 인민생활향상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시안의 경공업공장들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할 결의드높이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원산시직매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상품공급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자체의 힘으로 비누를 비롯한 여러가지 8월3일인민소비품들을 생산공급하여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특파기자 신 천 일

봄남새를 넉넉히 공급할 목표 강계시의 협동농장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남새는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식물의 하나입니다. 》

강계시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봄남새생산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자욱이 어려있는 야학협동농장 그리고 은정, 고영, 서산협동농장을 비롯한 시안의 협동농장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계절을 앞당기며 봄남새모를 잘 가꾸고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지난해보다 훨씬 높은 남새생산목표를 내세우고 더 많은 봄배추, 봄무우를 생산하여 강계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협동농장들에서 남새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시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도급기관, 시급기관들의 힘있는 지원속에 수천정보에 달하는 남새밭들에 정보당 수십t의 질좋은 자급비료를 실어냈다. 그리고 시의 농업부문 일군들은 서산, 석현, 흥주지구에서 캐낸 수천t의 니탄을 협동농장들에 실어내여 촭보산비료원료로 리용하도록 하였다.

시의 일군들은 협동농장들에 비닐박막과 봄배추, 가두배추, 오이 등 갖가지 봄남새종자도 제때에 보내주도록 하였다.

얼마전 시안의 협동농장들에 건설된 수천㎡의 온실들에서 자란 봄배추, 봄무우 등 봄남새모들이 전부 남새밭들에 옮겨졌다. 고영, 야학, 은정협동농장을 비롯한 시안의 협동농장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남새모판들에 대한 나래씌우기와 벗기기, 물주기, 덧비료주기 등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시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선진농업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올해 남새농사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특히 영양단지에 의한 시금치재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하고있다. 이 사업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야학협동농장이 제일 앞서나가고있다.

시의 농업부문 일군들의 구체적인 작전과 지휘, 농업근로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주인다운 일본새에 의해 올해 남새농사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될것이다.

특파기자 동 세 웅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제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대동강축전지공장에서— 최 충 성 찍음

인민의 기쁨에서 더없는 락을 찾으시는 위대한 어버이

사리원닭공장에 어린 령도의 자욱을 더듬어

친근한 우리의 어버이 김정일장군님!

이는 이 땅에 생을 둔 온 나라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심장의 토로이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낮이나 밤이나 위대하신 장군님을 뵈옵는 우리 인민들의 진정에 넘친 이 말은 사리원닭공장 전체 종업원들의 열렬한 심정그대로이다.

현대적인 가금기지로 번듯하게 전변된 사리원닭공장을 돌아보느라면 인민을 위해 크나큰 로고를 바쳐가시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와 북받치는 격정을 누를길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이고 보람입니다.》

사리원닭공장은 절세의 위인들의 한없는 은정과 보살피심속에서 인민들을 위한 복된 공장, 현대적인 가금기지로 전변된 뜻깊은 곳이다.

주체97(2008)년 12월 11일, 년말이라 가셔야 할 곳, 돌보셔야 할 일이 많고많은 그때 우리 장군님께서 한겨울의 찬바람을 맞으시며 개건된 사리원닭공장을 찾아주시였다.

크나큰 환희와 격정에 넘쳐 삼가 인사를 올리는 일군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공장구내에 세워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표식비를 이윽토록 바라보시였다. 뒤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리원닭공장은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뜻깊은 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의 연혁소개실이며 혁명사적물 보존실을 돌아보실 때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사리원닭공장자리를 잡아주시는 사진도 있는데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에게 닭고기를 먹이시려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고,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사리원닭공장이 현대적인 가금기지로 전변되였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말씀은 오늘도 천만군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을 먹이시려고 한평생 마음쓰시며 이 땅의 방방곡곡에 헌신의 자욱을 아로새기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와 뜨거운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백두산위인들께서 사리원닭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려고 현지에 나오신것은 주체57(1968)년 5월 중순어느날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친히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립석천을 끼고있는 발양산기슭의 양지바른 명당자리에 닭공장터전을 잡아주시였다.

그때로 말하면 영웅적조선인민군 해병들에 의하여 우리의 신성한 령해에 불법침입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나포되고 그를 구실로 미제가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수많은 전쟁장비들과 침략무력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끌어들여 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미쳐날뛰던 매우 엄혹한 시기였다는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허나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천만대적도 쥐락펴락하시는 담대한 배짱과 신념,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안으시고 인민을 위한 길을 함께 걸으시며 사리원닭공장의 터전을 친히 잡아주시였던것이다.

력사의 그날과 더불어 백두산위인들께서는 사리원닭공장을 여러차례나 찾으시여 불멸의 자욱을 새기시며 인민들에게 닭고기와 닭알을 풍족히 먹이시려고 깊이 마음쓰시였다.

잊지 못할 그날 비육사호동을 비롯한 여러 생산장을 돌아보시며 닭고기와 알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도를 일일이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현대적으로 꾸려진 교기가공장에도 들리시였다. 그때 가공된 닭들이 그리 크지 못하다는것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닭공장의 닭먹이단위가 인민군대의 닭공장보다 높은것은 공장에서 좋은 품종의 닭을 기르지 못하고있는것과도 관련된다고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사리원닭공장에서는 좋은 품종의 닭을 길러 먹이단위를 낮추어야 한다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닭사양관리에 대해 참으로 조예가 깊으신 어버이장군님의 해박한 식견에 일군들모두가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돼지나 물고기의 생산성을 높이는데서 종자가 기본인것처럼 닭을 기르는데서도 종자가 기본이라고 가르쳐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리원닭공장에 정연한 종자알공급체계를 세워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대책까지 취해주시였다.

이윽고 고기가공장 랭동고에도 들리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닭고기가 얼마나 되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에 대한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리원시에서 자체의 힘으로 닭공장을 개건하고 닭고기와 알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치하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인민들이 닭고기와 알을 공급받고 좋아한다니 나도 기쁩니다라고 하시면서 환히 웃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사리원닭공장에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합!》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고기와 알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수령님과 당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그날의 말씀은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모든 일군들이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어린 간곡한 당부로, 삶의 좌표로 모두의 가슴속에 더욱 깊이 간직되였다.

이렇게 인민을 위한 고결한 헌신의 자욱을 사리원닭공장에 새기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그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장의 관리운영에 절실히 필요한 먹이운반용 대형화물자동차들과 수많은 우량품종 종자알을 보내주시는 은정을 또다시 베풀어주시였다. 친근하신 어버이의 극진한 은정이 력력히 어린 자동차들과 종자알들을 받아안고 모두가 뜨거운 격정으로 두볼을 적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몸과 마음을 다 바쳐 꽃피울 맹세가 불길처럼 타번지였다.

사리원닭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어버이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모두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결사의 투쟁을 벌려 능률높은 가공설비들을 자체로 제작하고 큰 능력의 먹이가공장을 훌륭히 건설함으로써 생산활성화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놓았다.

전국적으로 진행된 현대화된 축산기지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에서 우승의 영예도 지니였다.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만지는것은 어버이장군님의 하늘같은 은덕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얼마전에는 원군사업을 잘했다고 하시며 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에게 분에 넘치는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오늘도 절세의 위인들의 손길아래 현대적인 가금기지로 전변된 사리원닭공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살찐 닭고기와 닭알들을 보고 기뻐하는 그들에게 공장종업원들은 뜨거운 심장으로 이렇게 말하군 한다.

—사람들이여! 그대들의 식탁에 오르는 닭고기와 닭알을 무심히 대하지 마시라. 그 하나하나에 인민들을 그토록 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하늘같은 은덕이 깊이 어려있음을 부디 잊지 마시라!

권 승 남

비약의 이원천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민이 있다.

우리 인민처럼 당과 수령에게 충직하고 의리심이 깊은 인민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시며 이민위천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한 애국헌신의 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결한 사랑은 내 조국의 위대한 비약의 원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김정일동지의 정치에서 기본특징을 이룬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주체92(2003)년 4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느 한 씨리카트벽돌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증산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공장구내를 둘러보시며 공장을 아주 잘 꾸렸다고, 공장이 깨끗하고 환하다고 하시면서 성형청년직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로동자들의 작업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이 벽돌들을 어디에 보내는가고 물으시였다.

공장일군으로부터 그에 대해 알아보고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씨리카트벽돌로 더 많은 농촌문화주택을 지어 우리 인민들이 좋은 살림집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앞으로 공장에서 생산하는 씨리카트벽돌전량을 농촌문화주택을 건설하는데 쓰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농촌살림집건설에 대하여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안겨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떠올라 눈굽을 적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장로동계급의 수고를 헤아려주시며 조국의 부강번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이제는 씨리카트벽돌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문화주택과 살림집들을 많이 건설할수 있게 된것만큼 공장이 은을 내도록 하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씨리카트벽돌공장을 언제 한번 보자고 했는데 오늘에야 보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이만하면 대단하다고, 공장이 현대화되였으니 농촌문화주택을 더 많이 건설할수 있게 되였다고 거듭 기뻐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그처럼 만족해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에서 일군들은 절세의 애국자,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그이의 숭고한 인민관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새겨안게 되였다.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길에 새겨진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현지지도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인민생활향상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고 공장의 강화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어버이의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헌신의 길이 있어 천만군민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혁명적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으며 인민의 만복이 꽃펴나는 강성대국의 찬란한 래일은 앞당겨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 금 분

선군혁명령도의 위대성으로

피현군 하단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당보와 여러 출판물들에 실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 자료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주별, 월별사업계획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이와 함께 일군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위대성자료들을 가지고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진행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어느 한 작업반에 나간 당조직의 일군은 작업의 휴식참을 리용하여 농업근로자들에게 쉬임없는 초강도강행군을 이어가시면서 존엄높은 김일성조선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감명깊게 이야기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농업근로자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었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이룩되게 될 뜻깊은 올해에 농사를 잘 지어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불타는 결의를 안고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로농통신원 최 원 화

숭고한 유훈의 뜻 되새기며

깊이 새겨주신 고귀한 진리

어느해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요회의를 지도하시면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혁명적으로 달라붙으면 전력문제도 얼마든지 풀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앞에 가로놓였던 난관을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뚫고나간 이야기들도 들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을 하는 과정에는 애로와 난관에 부닥칠 때가 많다고 하시면서 그럴 때마다 주저앉지 말고 자력갱생하여 가로놓인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력사정이 아무리 긴장하다 하더라도 그전에 우리앞에 가로놓였던 난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고 다시금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회의참가자들은 혁명의 진리를 더욱 깊이 새기였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전력공업발전의 확고한 방도

주체63(1974)년 2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협의회를 지도하시면서 우리 나라에서 전력생산을 더욱 늘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력생산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것이라고, 수력발전소는 물만 있으면 되므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수력자원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것이 제일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는 아직도 개발할수 있는 수력자원이 많다고, 압록강과 림진강에만도 골짜기마다 언제를 막아놓으면 많은 수력자원을 얻을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장자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급류를 리용하여 물레방아식으로 발전기를 여러대 놓아도 적지 않은 전력을 생산할수 있을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바다의 밀물과 썰물을 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하며 대동강하류에 조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그 경험에 토대하여 조수력발전소들을 잇달아 건설할수 있을것이라는데 대해서도 일깨워주시였다.

중소형수력발전소건설을 군중적으로

주체65(1976)년 5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무원(당시) 책임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면서 중소형수력발전소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소형수력발전소는 도들에서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건설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중소형수력발전소는 세멘트와 강재, 발전기만 대주면 도들에서 자체로 얼마든지 건설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도들에서 해마다 중소형수력발전소를 하나씩 건설하는 투쟁을 새 전망계획기간에 계속 벌리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이 기간에 중소형수력발전소에서만도 많은 전력이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도들에서 중소형수력발전소건설은 지난날 100만정보 판개공사를 할 때처럼 군중적운동으로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난날 100만정보 판개공사를 군중적운동으로 벌려 몇해동안에 해제낀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중소형수력발전소건설도 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면 짧은 기간에 끝낼수 있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그후 온 나라의 곳곳에 중소형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졌다.

본사기자 림 정 호

내각총리

당의 의도에 맞게 농업과학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강조

최영림내각총리가 25일 농업과학원사업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총리는 농업과학전시관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고 관계부문일군협의회를 조직하였다.

협의회에서는 당의 의도대로 농업생산에서 대혁신을 일으키자면 농업과학기술발전이 선행되여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되였다.

협의회에서는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다수확품종들을 더 많이 육종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고 과학자, 연구사들에게 사업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였다.

총리는 이날 청춘리 수영경기관을 돌아보고 그 관리운영을 개선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협의대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키자》

리 을 설

오늘 우리 인민은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날로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있고 원쑤들의 무분별한 전쟁소동이 그칠새없이 감행되고있으며 련이은 자연재해로 경제적난관까지 겹치고있는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구호를 힘차게 부르면서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강성대국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기개는 일찌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백두산에서 심어주신 붉은기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백두의 붉은기정신, 그것은 난관과 시련이 겹치고 비겁분자들이 배신의 길을 가도 혁명가들은 붉은기를 끌까지 지켜야 한다는 투철한 혁명적인생관이며 붉은기를 휘날리면서 억천만번 죽더라도 끌까지 원쑤를 쳐이겨야 한다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들의 가슴마다에 백두의 붉은기정신을 심어주시던 그 준엄한 시절의 이야기를 다하자면 끝이 없지만 그가운데서도 잊혀지지 않는것은 1940년 3월 대마록구치기에서 있었던 일이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위대한 수령님의 친솔밑에 화라즈로 넘어가는 대마록구치기에서 숙영하게 된것은 대마록구전투를 진행한 이틀후였다.

숙영지를 돌아보시고 밤늦게 천막에 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를 찾으시여 대마록구에서 얻은 신문들을 가져오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투때마다 신문, 잡지를 비롯한 출판물들을 수집하도록 하시고 우리 전령병들이 보관하게 하시였다가 보군 하시였는데 그것은 적들의 출판물이긴 해도 놈들의 책동과 정세연구에 참고할것들이 있기때문이였다.

내가 신문을 가져다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 동무들도 여기에 와앉소. 함께 신문을 봅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우리 전령병들은 서둘러 그이의 두리에 모여앉았다.

그이께서는 여느때처럼 우리들에게 신문에 실린 소식들을 몸소 알려주시였다. 신문에는 정세소식이 많이 실렸는데 우리들이 전후사연을 몰라 리해하기 힘든것들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해설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정세소식들을 알려주시면서 지금 유럽에서는 히틀러가 침략전쟁을 계속 확대하고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대륙침략에 미쳐날뛰고있다, 일제침략자들이 벌려놓은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도 그 한 고리라고 말할수 있다, 놈들은 이 작전에 20만의 대병력을 들이밀어 어떻게 하나 조선인민혁명군을 압살해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어림도 없는짓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은 건재하고있으며 싸워서 이기고있다, 우리는 이틀전에도 대마록구를 쳐서 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20만대군의 경계진을 뚫고 백두산동북부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우리가 불현듯 돈화오지로 진출하여 크게 총소리를 내고 바람같이 사라졌다가 다시 두만강연안일대로 진출하여 대마록구를 치게 되자 놈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으며 악에 받쳐 비명을 지르고있다, 얼마나 통쾌한 일인가, 혁명하는 보람이 있지 않는가고 말씀하시였다.

그 말씀을 들으니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혁명가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그런데 문득 위대한 수령님의 격하신 음성이 쩡 천막안을 울리였다.

비겁분자, 변절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오! 적의 《위공작전》에 겁을 먹고 투항한 림수산이 감히 우리를 《토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왜놈의 사냥개가 되고말았습니다. …

우리는 격분에 치를 떨며 그이께서 보시던 《만선일보》를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왜놈의 개로 전락된 림가의 며벌임을 적은 글과 함께 놈의 더러운 몰골을 찍은 사진까지 나있었다.

우리는 온몸의 피가 꺼꾸로 솟는것만 같아 참을수가 없었다.

《사령관동지, 당장 저놈을 끌어다가 혁명의 이름으로 처단합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의 말을 들으시고 동무들의 심정은 알만하다, 그래도 한때는 참모장이라고하여 혁명이 이렇소, 저렇소 하면서 우쭐대던자가 동지들을 배신하고 원쑤들의 개로 전락되였으니 얼마나 역겹고 가증스러운가, 이렇게 썩은놈이 허울을 벗고 적들편으로 도망친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개울물 흐린다고 이런 놈이 대오안에 계속 배겨있으면 더 큰 손실을 입을수 있다, 그러나 혁명은 준엄하고 공정한 심판관이다, 그리하여 림가는 자기의 정체를 더는 숨길수 없었으며 혁명을 배신하는것으로 자기의 더러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원수들에게로 도망쳐갔다고 하시면서 문제는 림가의 변절에서 교훈을 찾고 혁명의 길을 더욱 억세게 걸어나가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면 림가놈의 변절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찾게 되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시면서 나에게 자기 생각을 말해보라고 하시였다.

《그놈은 비겁분자입니다. 비겁분자는 어렵고 힘든 때에 변절할수 있기때문에 이런 놈들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의분을 금치 못하며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의 말을 들으시고 그러면 비겁성은 왜 생기는가, 그것은 자고자대하면서 자기를 수양하지 않은데서 생긴것이며 신념이 강하지 못해서 생긴것이다, 림가는 중학교물이나 좀 먹은것을 대단하게 여기면서 사상단련을 하지 않았다, 림가는 지위가 높아지자 교만해져서 동지들의 충고를 귀담아듣지 않고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면서 사리와 공명을 추구하였으며 안일부화한 생활에 물젖어 혁명가의 량심을 잃어버렸다, 그리하여 혁명의 길에서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에 겁을 먹게 되였으며 끝내는 혁명을 배반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림가는 《혁산사건》때 벌써 겁을 먹고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6도구전투에서 그대로 표현되였다고 하시면서 혁명대오에서 변절자, 타락분자가 생기는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공산주의운동의 력사를 더듬어보면 맑스와 엥겔스를 배반한 베른슈타인이나 카우츠키같은 변절자들도 있었고 레닌, 쓰딸린을 반대한 뜨로쯔끼, 부하린, 지노비예브와 같은 배신자들도 있었다, 중국공산당에도 장국도와 같은 배신자가 나왔다, 그렇다고 하여 혁명이 후퇴한적은 없었다, 그것은 견실한 공산주의자들, 진정한 혁명가들이 필승의 신념, 불굴의 의지를 지니고 만난을 헤치면서 혁명의 붉은기를 끌까지 지켰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이러한 합법칙적과정을 잘 알고 오늘의 난관앞에 겁을 먹고 동요할것이 아니라 신심을 가다듬고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난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였다.

당시 정세는 참으로 엄혹하였다.

일제의 판동군사령관 우메즈와 만주국 치안부대신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노조에사령부의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에는 1936년의 《북부동변도치안공작》때보다 12.5배나 되는 20만이상의 대병력이 동원되고있었다. 비용상으로는 13배나 된다고 하였다. 길림, 통화, 간도 3성에 목단강성까지 포함하는 광범한 지역이 《토벌》작전대상지로 선정되였으며 군사작전과 함께 《귀순공작》, 《사상공작》, 《치본공작》이 악랄하게 감행되고있었다.

우리가 대마록구치기에 이른 그날에도 놈들은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삐라를 뿌리면서 우리를 어째보려고 발광하였다.

《이제 남은것은 너희들뿐이다. 무모하게 대항하지 말고 투항하라!》, 《귀순하면 살려준다. 산에서 내려오라. 처자권속이 기다린다.》

이러루한 내용의 삐라가 산과 골짜기들에 하얗게 뿌려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날 당시를 회상하여 고난의 행군에 못지않는 간고한 시기였다고 하시였다.

게다가 림가놈이 사령부의 행방을 적들에게 알려주고 식량저장소들을 파헤치고 식량예비를 모조리 없애버렸기때문에 고난에 고난이 겹치는 실로 준엄한 난국이 우리앞에 가로놓여있었다.

생각할수록 이가 갈리는 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참기 어려우신듯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였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그이께서는 우리들을 둘러보시며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기가》에도 《비겁한자야 갈라먹은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고 하지 않았는가, 정세가 곤난하고 싸움이 어려워질수록 비겁한자들은 동요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풍파속에서도 동요없이 조선혁명의 붉은기를 지켜낼것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혁명의 붉은기를 끌까지 지키자!

혁명의 붉은기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억천만번 죽더라도 끌까지 원쑤를 치자!

이것이 내가 오늘 동무들에게 하고싶은 말입니다. 우리모두 오늘의 맹세를 영원히 잊지 맙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우리들은 《사령관동지!》하고 웨치며 그이품에 안기였다.

《사령관동지, 우리들은 붉은기를 끌까지 지키겠습니다.》

《절대로 림가놈처럼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우리들은 이루 형언할수 없는 뜨거운 격정에 목이 메였다.

그러는 우리들을 품에 꼭 껴안으시며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동무들을 믿소.》

그러시고는 조용히 근엄한 음성으로 《적기가》를 부르시였다.

우리는 그이를 따라 눈물을 머금고 심장으로 《적기가》를 합창하였다.

…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그밑에서 굳게 맹세해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

그때로부터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우리는 바야흐로 21세기를 바라보게 되였다.

그러나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일시적난관을 겪고있고 주변정세가 복잡하며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감행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간고하고도 준엄한 그때를 련상케 하고있다.

하지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백두산에 세워주신 조선혁명의 표대인 주체의 붉은기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굳건히 고수되고있으며 그이의 령도따라 우리 인민은 백두의 붉은기정신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승리의 길로 변함없이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혁명의 붉은기를 지켜싸우는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

굴지의 철강재생산기지에 최첨단돌파전의 열풍 휘몰아친다

김 책 제 철 련 합 기 업 소 에 서

조선의 과학자들은 이렇게 미래를 개척해간다

현대화공사에 참가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이자 국력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애국의 열정을 바쳐 강성대국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야 합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가열로현대화공사를 다그쳐 자랑찬 성과를 거두고있다.

설비조립공사가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 부분별시운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다.

금속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실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이 경이적인 현실앞에서 김철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을 널리 소개해주십시오.》

김철사람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인연을 맺은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되여 이들은 기적창조의 주인공으로 다름아닌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을 꼽는것이며 불을 다루는 사나이들의 가슴마다에 이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새겨진것인가.

선 구 자 가 되 자

지난해 1월 북방으로 달리는 렬차에는 중앙의 과학연구기관들과 여러 대학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타고있었다. 그들중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도 있었다.

김철의 현대화를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며 자기들을 그 투쟁의 앞장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생각할수록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들이였다.

현지에 도착하여 련합기업소를 돌아보고 연구과제를 확정하는 순간에 그들이 스스로 택한 결심은 무엇이였던가.

—재래식가열로를 아예 들어내고 새로운 연소기술에 의거하는 가열로를 건설하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그중에는 새로운 연소기술에 대해 듣느니 처음인 사람들도 있었고 그 우월성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도 아직 완전한 파악이 없어 선뜻 손대기를 저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길에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주저없이 들어섰다.

압연강재생산의 주체화와 현대화를 동시에 실현할 막중한 부담을 스스로 걸머지고 조선의 지식인들은 억척같이 큰걸음을 내짚었다.

금속공학부 공업로공학강좌, 자동화공학부 로보트조종공학강좌를 비롯한 대학의 여러 단위에서 피타는 탐구와 사색, 부강조국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창조의 불이 일었다.

부분별 모의시험, 엄밀한 계산, 긴장한 설계전투, 치밀한 검토…

밭은 자기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민족적자존심을 분출시키는 격렬한 두뇌전, 실력전이였다.

드디여 1년은 실히 걸려야 한다던 방대한 기술준비를 한달만에 끝낸 이들은 련이어 련합기업소의 기술자들과 합심하여 설계작성에 달라붙었다.

지금까지 작성한 기술문건들을 넘겨주고 시공과정을 강건너 불보듯 한다는것은 이들의 량심에 허용되지 않았다.

설계도 시공도 함께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또다시 불굴의 의지를 가다듬은 이들은 가열로현대화공사장에 작업복차림으로 뛰여들었다.

정 복 자 가 되 자

공사과정에 난관이 겹쳐들고 어려운 기술적문제들이 나설 때마다 이들에게 힘을 준것은 련합기업소일군들이였다.

과학기술중시의 립장에서 추호도 흔들림 없이 때없이 현장에 찾아와 우리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과학자들이라며 모든 의견을 심중히 듣고 사소한 실망이나 주저도 없이 줄기차게 앞으로만 내달리도록 조건을 지어주고 대책을 세워주는 미더운 일군들과는 참으로 마음이 통하고 호흡이 맞았다.

중요한 설계문건에 수표를 하게 된 책임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사람들의 일치한 관심속에 교원들인 김인규, 문창원동무들은 한자리에 앉아 이윽토록 도면을 들여다보고있었다.

《난 선생의 실력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문창원동무의 고무적인 말이였다. 마치 다른 생각에 옴해있는듯 창밖의 어느 한 곳을 줄곧 응시하고있던 김인규동무는 무겁게 입을 떼였다.

《저 가열로를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쉽게 수표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또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길밖의 다른 길이란 없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결과앞에서도 끝까지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련합기업소 지배인 리히헌동무의 말이였다. 항상 연구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며 새로운 착상도 틔워주군 한 고마운 일군이였다. 그들은 힘있게 손을 마주잡았다.

정복자의 배짱과 용감성, 야심만만한 투지로 이들은 설비조립과정에 제기된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공법들을 련이어 창안도입함으로써 공정기일을 단축하고 막대한 로력과 자금, 자재를 절약하는 등 공사의 완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 나날에 전해진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은 들을수록 가슴뜨겁다.

많은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조용히 또 다른 공사장으로 떠나간 오광룡동무, 현장에 내려와 헌신분투하는 연구사들을 위해 사심 없는 방조를 보내준 대학의 로보트조종공학강좌의 교원들, 공사의 첫날부터 오늘까지 현장의 기능공들과 합심하여 진심을 바쳐가고있는 교진혁동무를 비롯한 젊은 연구사들…

실로 그것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말없이 진정을 바쳐가는 애국자들만이 걸을수 있는 헌신의 길, 량심의 길이였다.

우리와 만난 김인규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미 가열로를 새로운 기술로 가동시킬데 대하여 연구종자와 방향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스승의 선견지명이 있었기에 이처럼 우리는 새 기술의 정복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혼자만이 아니라 공사에 참가한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그렇다. 이 땅의 선구자, 과학기술의 정복자들에게는 위대한 스승이 계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키워주신 이런 훌륭한 애국자의 대부대를 가진 우리 조국은 앞으로도 세인을 놀래우며 경제강국의 지름길로 폭풍쳐 내달릴것이다.

애국의 열정안고 첨단의 령마루에로

련합기업소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최첨단돌파전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떨칠 드높은 열의를 안고 현대화사업에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의 보다 높은 요구를 대담하게 제기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쳐 끌내는것을 중요한 투쟁목표로 내세우고 이 사업을 적극 다그치도록 기술자, 기능공들을 총발동하고있다.

새로운 기술로 가열로를 가동시키기 위한 공사장에서는 련합기업소지휘부에 소속된 여러 단위의 기술자들이 자기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이들은 현장에 내려온 연구사들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시공의 매 단계마다에서 세부적인 요소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합의하면서 공사를 설계의 요구대로 진척시키고있다.

이미 천여m의 판망을 정비한 이들은 여러 설비제작에서도 서로의 지혜를 합쳐 기발한 착상들을 내놓으면서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였다. 그리하여 가열로의 완공기일을 앞당기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을 훌륭한 창조물을 내놓을수 있게 하였다.

원호식련속조피기 가스절단기의 현대화에 동원된 강철2직장의 기술자, 기능공들과 자동화2직장의 기술자들도 현지에 달려온 교원, 연구사들과 합심하여 첨단연구성과들을 생산공정에 받아들이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였다.

현대화의 불길은 주체철생산체계를 더욱 완비하기 위한 전투장에서도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기업소의 기술자들은 가스청정계통의 능력을 종전보다 높여 주체철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술혁신안과 창의고안들을 련이어 내놓으면서 총공격전의 하루하루를 빛내여나가고있다.

김명종, 정영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하루빨리 현대화된 생산공정에서 주체철생산을 더욱 늘여갈 일념안고 기술개건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련합기업소 각 단위에서 과학기술발표회가 련이어 진행되는 속에 합리화안들이 계속 쏟아져나오고 창의고안명수들이 수많이 배출되고있다.

최첨단돌파전에서도 김철의 신념과 본때, 실천력을 남김없이 과시할 드높은 열의밑에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련합기업소의 기술자, 기능공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현대화공사장들에서는 날에날마다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창 조 의 기 수 들

만 족 을 모 르 는 과 학 자

기업소의 현대화공사장에 가면 현지일군들과 기술자들이 마음이 통하고 손발이 맞는다고 일치하게 평가하는 한 과학자가 있다. 그가 바로 **국가과학원 전기연구소 연구사 리정호동무**이다.

기업소의 기술자들과 함께 현장료해를 구체적으로 한데 기초하여 작성한 그의 프로그람은 현실에 맞고 실용성이 높은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연구과제가 완성될 날이 가까와진 오늘에도 그는 모든 창조의 비결을 현장기술자들과의 합심에서 찾고있다.

성과에 만족을 모르고 현대화의 보다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 늘 사색하고 또 사색하는 그의 진지한 태도를 두고 김철사람들모두가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높 은 실 력 으 로

과학자가 되기 전에 애국자가 되여야 한다.

이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금속공학부 교원 김인규동무**가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사는 좌우명이다.

애국적열정을 안고 교육사업도 과학연구사업도 잘해나가는 그는 지금 김철의 현대화에서 큰 몫을 맡아 수행하고있다.

늘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며 설비조립과 계통별시운전에서 높은 실력을 발휘하고있는 그를 두고 김철사람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그 어떤 정황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심과 락관에 넘쳐 맡은 연구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는 그에게는 완강한 기질의 소유자라는 대중의 평가가 따르고있다.

사 소 한 빈 틈 도 없 이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공학부 교원 김대명동무가 하는 일을 놓고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말을 한다.

《마음을 푹 놓아도 됩니다.》

3호가열로의 현대화를 위해 공사장에서 창조적열정을 바쳐가는 김대명동무에 대한 믿음이 이 말속에 담겨있다.

언제나 정열에 넘쳐 확고한 과학적주견을 세우고 사소한 빈틈도 없이 일을 마무리하는 그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이미 여러 현대화공사에 참가하여 높은 실력을 발휘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았지만 그는 오늘도 매사에 심중하고 확인과 검토를 거치기 전에는 만족을 모른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김철의 신념과 본때, 실천력으로 가열로현대화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단상 김 철 의 불 노 을

철의 기지 김철에 노을이 피여난다. 김철의 하늘가를 붉게 물들이는 저 불노을은 바라볼수록 세찬 격정을 불러일으킨다.

여기 철의 도시에 뜨겁게 굽이쳐 흘러간 투쟁의 년대들과 더불어 얼마나 많은 사연을 전하여주는 불노을인가.

전후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며 자립경제의 굳건한 터전을 다져나가던 시기 철의 도시의 하늘가에는 천리마의 기상이 어려있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사회주의건설의 그 나날에는 속도전의 불노을이 쉬임없이 타올랐고 그처럼 어렵던 고난의 나날에는 꺾이지도 흔들리지도 않을 신념과 의지의 노을이 불탔다.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김철의 하늘가에 펼쳐진 불노을, 주체의 불노을은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을 전하여주는것인가.

천리마대고조시기 김철을 찾으셨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모습으로 절절한 애국의 호소를 안으시고 여러차례나 찾아오시여 이곳 로동계급을 대고조격전에로 불러일으키신 경애하는 장군님,

힘이 모자라면 힘을 주시고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손길이 있어 어버이수령님께서 그처럼 바라시던 주체의 쇠물이 폭포쳐 쏟아지고있는것이 아니랴.

그렇다. 김철은 오늘도 시대의 맨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김철의 불노을은 머지않아 강성대국승리의 불노을로 이어질것이다.

지상연단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두벌농사를 실속있게

선진영농방법의 도입과 기술적지도

신계군 농업부문 일군들을 만나보고

얼마전 우리는 신계군의 농업부문 일군들을 만나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앞그루감자심기를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두벌농사는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에 맞는 주체적인 집약농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와 만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기사장은 지금은 당면한 앞그루감자심기를 해야 할 시기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올해 군에서는 앞그루감자농사면적을 지난해보다 수백정보나 더 늘이였다. 적은 면적이 아니다. 앞그루감자심기를 10일안팎에 성과적으로 끌내자면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바삐 뛰여야 한다. 일이 바쁠수록 앞그루감자심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군에서는 3월 25일부터 4월초까지를 앞그루감자심기 적기로 정하고 력량을 감자심기에 집중하고있다.

사실 이 군은 농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서해벌방지대보다 봄날씨가 차다. 이런 조건에 맞게 서해벌방지대보다 늦게 앞그루감자심기를 시작해야 한다. 더우기 올해는 현재까지 례년보다 비가 훨씬 적게 내리였고 봄날씨가 차기때문에 앞그루감자농사를 짓는데 매우 불리하다.

이런데로부터 군일군들은 먼저 감자를 놓은 다음 그우에 거름을 놓고 흙으로 묻어주는 방법을 많이 받아들이도록 장려하고있다. 이 방법을 받아들이면 가물피해를 막을수 있으며 예상치 않게 기온이 내려가도 앞그루감자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다는것이 지난 기간의 영농실천에서 증명되였기때문이다.

군에서는 올해 앞그루감자농사면적을 지난해보다 수백정보나 더 늘인 조건에 맞게 모든 력량을 집중하여 감자심기를 다그치게 하고있다. 감자심기를 적기에 해야 생육기일을 보장할수 있기때문이다.

이 군의 앞그루감자농사에서 주목되는 다른 한가지는 실정에 맞는 겹재배방법을 받아들이는것이였다.

군에서는 포전들의 특성에 맞게 두이랑은 강냉이를 심고 다음 두이랑은 감자를 심는 방법과 여섯이랑은 강냉이를 심고 다음 여섯이랑에는 감자를 심는 방법, 여덟이랑은 강냉이를 심고 다음 여덟이랑에는 감자를 심는 방법을 받아들이도록 하고있다.

이 문제를 놓고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군은 파악이 있는 겹재배방법을 받아들여야 원그루강냉이농사는 물론 뒤그루농사도 성과적으로 할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군에서는 대체로 4월 중순부터 강냉이심기를 시작하군 하였다. 이때 협동농장들에서는 겹재배방법으로 강냉이를 심는데 맞게 평당 포기수를 정하였다. 이미 감자를 두이랑 심은 포전에 강냉이를 심을 때에는 감자를 심은 면적을 거저 얻어낸것과 다름없게 평당 포기수를 늘이였다.

여섯이랑은 강냉이를 심고 다음 여섯이랑은 감자를 심을 때에도 군에서는 신흥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들의 지난 기간 농사경험을 총분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강냉이를 심는 첫이랑은 두번째 이랑보다 평당 포기수를 늘이고 두번째 이랑은 세번째 이랑보다 평당 포기수를 늘이는 방법을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니 통풍조건이 잘 보장되는것은 물론 해비침률도 높아 강냉이는 물론 앞그루감자농사도 안전하게 지을수 있었다. 일부 농장의 작업반들에서는 이랑마다 서로 다른 품종의 강냉이를 심었는데 성과가 좋았다.

군에서는 올해 두벌농사면적을 더욱 늘인데 맞게 지난 기간의 영농실천과정에 확고히 파악된 겹재배방법을 받아들이는데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창 길

앞그루감자심기에서 중시한 문제

지금 우리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두벌농사를 잘 지어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 목표밑에 앞그루감자농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나가야 합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올해에 앞그루감자농사면적을 지난해보다 1.3배로 늘이였다. 면적이 많아지니 땅의 지력을 높이는데 많은 품을 넣어야 하였다. 특히 포기수를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우리 농장의 일군들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짓기 위하여서는 모두가 정열적인 사색가, 창조의 능수, 용감무쌍한 지휘관이 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갔다.

우리는 농장원들의 심장속에 당의 두벌농사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해설해주면서 앞그루감자농사준비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한덩어리가 되여 감자종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발돌추어내기, 흙깔이, 소석회치기를 짧은 기간에 끝냈다.

그리고 포전마다 질좋은 유기질비료와 흙보산비료도 듬뿍듬뿍 넣다.

또한 고랑판수와 강우기관수를 할수 있게 밭머리에 물도랑을 째고 관수설비들에 대한 수리정비도 말끔히 해놓았다. 품은 들어도 보람이 있었다.

농장에서는 이렇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례년에 없이 날씨가 찬 조건을 고려하여 앞그루감자심기적기를 바로 정하였다. 그리고 일군들이 작업반들을 맡고 내려가 앞그루감자심기를 질적으로 하기 위한 기술적지도를 짜고들도록 하였다.

앞그루감자심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농장에서 품을 넣고있는 문제의 하나는 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는것이다. 적기보장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시해야 할것은 평당 포기수를 기술적요구대로 정확히 보장하는것이다. 특히 두줄모아심기를 하는 조건에서 평당 포기수를 보장하지 못하면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없게 된다.

평당 한포기만 없어도 한 정보에서 수십평을 잃는것이나 같다. 그렇게 되면 앞그루감자의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없다. 일군들은 이런 내용으로 농장원들속에 포기농사의 중요성을 알려주어 모두가 깐진 일본새로 포기마다 정성을 다해가며 감자를 심게 하고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모두가 신심에 넘쳐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가니 성과는 계속 오르고있다.

우리는 앞그루감자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냄으로써 올해 알곡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겠다.

운전군 송학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변 창 원

1.4분기 통나무생산계획 완수

자강도림업관리국에서

자강도림업관리국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올해공동사설을 받들고 년초부터 돌격전을 벌려 1.4분기계획을 25일현재 101%로 완수하였다.

일군들은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대중을 생산적앙양에로 불러일으켰다.

강계림산사업소가 계획수행에서 앞장섰다.

사업소에서는 기업관리를 짜고들고 로동자들의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생산을 드세게 내밀어 2월말에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결속하였다.

랑림, 화평림산사업소에서는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이고 나무베기를 앞세움으로써 일정계획을 150%이상 해제꼈다.

일터마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고있는 희천, 동신, 삼락갱목생산사업소의 로동계급은 륜전기재들의 가동률을 높여 운반실적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배로 장성시켰다.

양계림산사업소에서는 림지를 잘 선정하고 여러가지 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계획보다 많은 통나무를 생산하였다.

성간, 자성림산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사업소들에서도 나무베기와 나르기 등의 맞물림을 짜고들면서 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성과를 확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뜨거운 진정을 바쳐

안주시 덕성동 녀맹원들

평안남도 안주시 덕성동 녀맹원들이 영예군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이곳 녀맹원들은 지난 기간 명절과 기념일, 휴식일마다 동진료소에서 치료를 받고있는 영예군인들을 찾아가 그들의 건강회복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왔다.

동녀맹일군인 리혜원동무는 영예군인들의 건강회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갈 결심밑에 여러차례에 걸쳐 가족과 함께 많은 식료품들과 보약들을 마련하여가지고 영예군인들을 찾아가 자기들이 준비한 예술소품공연도 보여주면서 그들이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치료에 전심하도록 하였다.

그는 동안의 녀맹원들이 조국을 위한 복무의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친 영예군인들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도울것을 호소하고 이 사업에 언제나 앞장서나갔다.

이에 호응하여 동안의 많은 녀맹원들이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게 되였다.

동안의 녀맹원들은 누가 알아주건말건 영예군인들을 돕는것을 자기들의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 궂은날, 마른날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뗄감과 식료품, 생활필수품들을 마련하여 그들에게 보내주군 하였다.

오늘도 이곳 녀맹원들은 영예군인들을 위해 온갖 지성을 다 바치고있다.

본사기자 오 철 권

각 지 에 서 들 어 온 소 식

일군들이 첫이랑을 타고나가며

송화군 수증리 리당부비서 윤정웅동무는 농장에서 앞그루감자심기를 다그치고있는 소식을 보내여왔다.

그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이곳 농장원들은 농사조건이 매우 불리하지만 올해 두벌농사에서 본때를 보일 드높은 결의로 가슴을 끓이며 모두가 신심있게 떨쳐나섰다.

김영호동무를 비롯한 농장일군들이 남먼저 첫이랑을 타고나가며 대중을 이끌고있다. 그들은 한포기의 감자를 심어도 질좋은 거름을 두툼히 깔고 평당 포기수를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농장원들모두가 일군들의 뒤를 따르고있다.

실정에 맞는 재배방법으로

로농통신원 김선일동무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태천군 송원목화전문협동농장 제1작업반의 농업근로자들**이 당면한 앞그루감자심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잘해나가고있다.

주목되는것은 작업반에서 영농실천에서 우월성이 확증된 겹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있는것이다. 신심드높이 떨쳐나선 농장원들은 이랑짓기와 거름퍼기, 감자놓기, 흙덮기 등 감자심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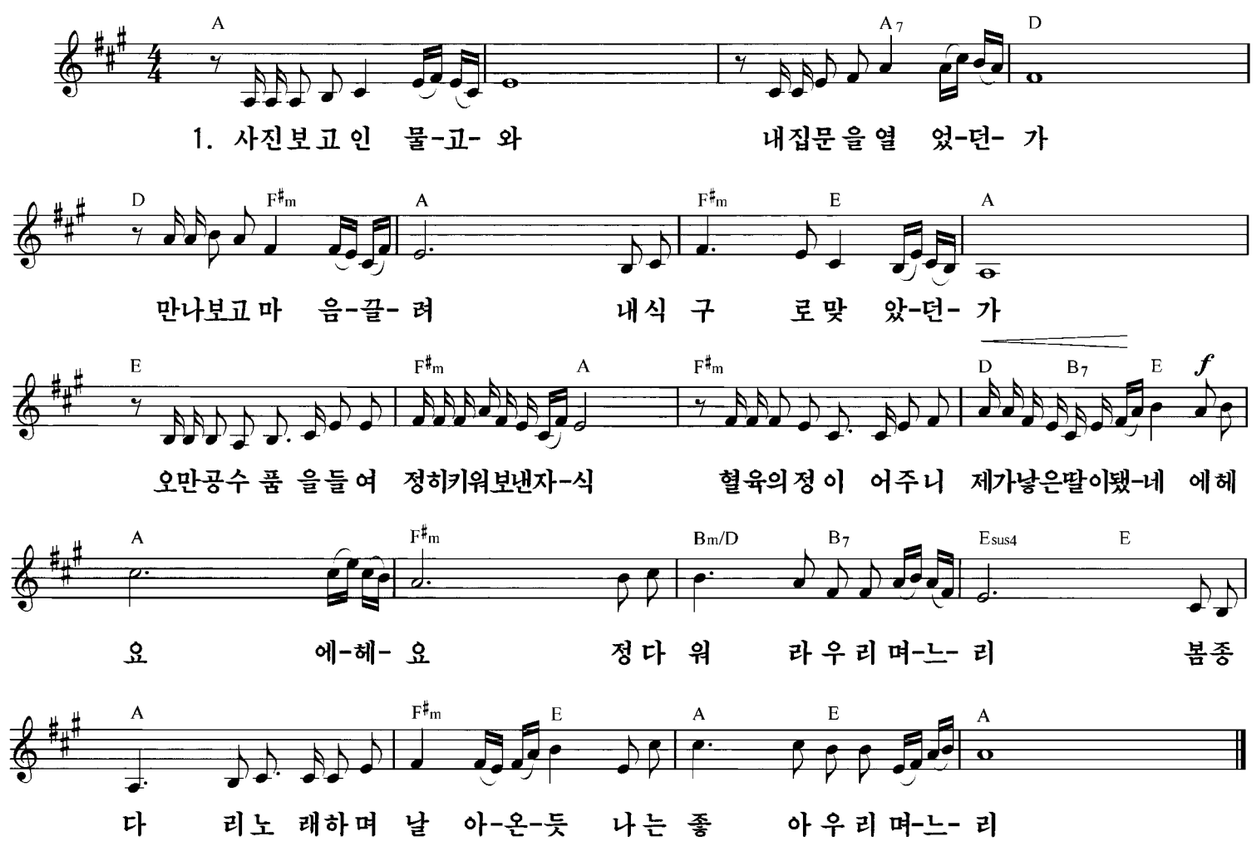
작업반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당면한 앞그루감자심기성과가 오르고있다.

본사기자

우 리 며 느 리

작사 윤두근
작곡 안정호

정을 담아서 (♩=68)



2. 살림에는 빛갈고운 행복의 꽃 피워놓고
생활에는 향기짙은 화목의 꽃 가꿔가네
시부모를 대할 때는 이리 봐도 친딸이요
시동생들 돌볼 때는 저리 봐도 친누이야
에헤요 에헤요 정다워라 우리 며느리
동지섣달 눈속에 핀 꽃 보는듯
나는 좋아 우리 며느리

3. 온 가정이 화목하면 만가지 일 잘된다는
어버이의 친필글발 거울처럼 보며 사네
동네방네 집집마다 부러워서 칭찬할 땐
늙었어도 이제라도 아들 열은 더 낳고파
에헤요 에헤요 정다워라 우리 며느리
함께 가면 밝은 해도 반기는듯
나는 좋아 우리 며느리

불타는 그리움속에 만발하는 태양의 꽃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종업원들

우리는 얼마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올해의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불멸의 꽃 김일성화를 더 많이, 더 아름답게 피워가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 김일성화김정일화 온실을 찾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김일성화를 잘 키워 대대손손 길이 전하며 김일성화가 우리 나라의 그 어디에서나 만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온실에 들어서니 활짝 피여난 김일성화가 그야말로 꽃바다를 이루며 아름답게 펼쳐져있었다.

올해와 같이 강추위가 지속된 조건에서도 아름답고 진귀한 꽃을 천여상이나 피우고있다니 실장 박성미동무를 비롯한 온실성원들의 뜨거운 지성이 한눈에 안겨왔다.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은 꽃들이 망울을 터쳤다고 하면서 실장 박성미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예로부터 원예사의 마음이 꽃을 피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불멸의 꽃들은 우리만이 아닌 수백만 청년들의 마음에서부터 한송이한송이 망울을 터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몇해전 온실을 참관하였던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자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는것이였다.

그들이 해마다 보내오고있는 이끼는 김일성화재배에 절실히 필요한 재료였다. 하여 실장 박성미동무는 그들이 또다시 많은 이끼를 가지고 평양에 도착하였다는것을 알았을 때 온실참관을 조직하였다. 그들의 마음도 함께 담아 꽃을 피웠다는것을 보여주고싶었다.

꽃을 보며 연방 감탄을 금치 못하던 그들이 불쑥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이끼를 비롯한 재료들은 우리 청년들이 다 맡을테니 원예사동무들은 수천상, 수만상의 꽃을 피워주십시오. 꽃모양도 색갈도 청년들이 피운 꽃이 제일 크고 훌륭하게 말입니다. 부탁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박성미동무는 불멸의 꽃에 바쳐가는 청년들의 뜨거운 마음이 다시금 되새겨졌다.

—이런 청년들의 마음과 열정을 담아 불멸의 꽃들을 활짝 피워가리라.

그는 청년들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에 새기고 불멸의 꽃을 더 아름답게 피우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치였다. 그 나날에 김일성화재배와 그에 알맞는 온실조건을 서술한 책들은 거의나 읽어보았다.

꽃의 생리학적특성을 깊이 관찰한데 기초하여 매 꽃이 자라는 속도를 측정해보고 생육시기에 알맞는 온도를 찾기 위해 꼬박 새운 밤은 얼마인지 모른다.

유기질비료를 만들면서도 청년들의 마음이 느껴지게 꽃색을 더 곱게, 꽃대를 더 튼튼히 하기 위한 수십차례의 실험을 거듭하였다.

그의 열정은 온실성원들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열관리공 리영이 동무는 석탄을 절약하면서도 온실안의 온도를 보장할수 있는 좋은 창안을 내놓았으며 재배공 방금성, 장은정동무들도 천여상이나 되는 꽃을 매일 관찰하면서 더 아름답게 피우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였다.

하루와 같이 김일성화재배에 온갖 지성을 기울이고있는 이들을 보며 청년동맹일군인 김상철동무를 비롯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필요한 자재구입을 자진하여 맡아안았고 불멸의 꽃재배를 위해 뜨거운 마음을 바치였다.

마침내 온도를 조절하는 저온칸, 중온칸, 고온칸이 온실안에 생겨나고 김일성화재배를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도 수천송이의 꽃을 더 활짝 피울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게 되였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열정의 산물인양 온실안을 가득 채우며 만발한 김일성화를 보며 우리는 생각하였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끝없이 피여나는 김일성화는 자연계의 열과 빛으로만 피는 꽃이 아니였다.

인민의 심장속에 뜨겁게 굽이치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피는 꽃, 수령님을 영원히 따르고싶은 충정의 열도가 안아온 불멸의 꽃이였다.

김 옥 별

과수업발전에 기여할 과학연구성과

농업과학원 과수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우리 인민에게 사철 맛좋고 신선한 과일을 먹이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최근년간 과수업발전에 기여할 많은 연구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들은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틀어쥐고 비상한 창조적열정을 발휘하여 추위와 병견딜성이 강한 사과와 생산성이 높은 배, 추리, 빨리 수확할수 있는 복숭아, 살구, 포도 등을 육종하였다.

또한 우량품종의 사과나무를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순화시키는데 성공하고 이를 전국의 과일생산기지들에 널리 퍼치고있다.

연구집단에서는 키낮은사과나무모를 종전보다 1년 앞당겨 생산할수 있는 방법, 열매맺음률을 높이며 원줄기우세를 보장할수 있는 가지자르기방법 등을 연구완성하여 밀식재배를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밤나무모를 다량생산할수 있게 한것을 비롯하여 과일나무모생산을 늘이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을뿐아니라 수십만그루의 나무모들도 재배하여 과수농장들에 보내주었다.

이들은 주요병해충들의 발생원인과 특성을 해명한데 기초하여 합리적인 약뿌리기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병해충예찰사업을 강화할수 있게 하여 과일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하였다.

한편 김매는기계를 비롯한 새로운 능률높은 기계들을 창안제작하고 효과적인 과일보판방법들을 연구도입하였다.

연구소에서는 과일나무재배와 관련한 선진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도 적극 벌리고있다.

이곳 연구집단은 력사적인 북청학대회의 50돐을 맞는 올해에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 상 을 찾 아

로씨야 련방이민국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29일 아나똘리 꾸즈네쪼브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 련방이민국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조로친선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 담아 그이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중앙통신】

선군체육열성자회의 참가자들

만 경 대 방 문

【평양 3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선군체육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이 29일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할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과 할머님이신 리보익녀사의 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과 어머님이신 강반석녀사의 묘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묵상하였다.

그들은 만경대혁명사적관을 참관한 다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았다.

력사의 고향집에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면서 그들은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만경대의 봄이 있어 이 땅우에 민족재생의 서광이 밝아오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이 일떠섰으며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마련될수 있었음을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그들은 이에 앞서 선군조선의 장엄한 기상과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치는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또한 수중체조무용모범출연을 보면서 당의 체육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체육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적극 기여할 결의를 가다듬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의장일행 런 던 도 착

【평양 3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영국을 방문하는 최태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일행이 27일 런던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전 국회 상원 부의장인 영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 정당의원단 부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영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맞이하였다.

조선인민군 군사대표단과 캄보쟈국방성대표단 회 담 진 행

【평양 3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군사대표단과 캄보쟈국방성대표단의 회담이 28일 캄보쟈국방성청사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군사대표단 성원들과 캄보쟈왕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상대측에서 국방상고문인 국방성 정책 및 대외관계총국장 등 국방성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군대들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담은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대비약의 불길높이 체육강국을 향하여

오늘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선군체육열성자회의가 성대히 진행되게 된다.

위대한 당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며 나라의 체육기술발전과 조국의 영예를 승리의 금메달로 빛내이는데 이바지한 자랑을 안고, 체육강국건설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떨쳐갈 확고한 신심과 락관으로 가슴 불태우며 전국각지에서 온 수많은 참가자들이 뜻깊은 회의장으로 긍지높이 들어서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체육을 발전시키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며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고 민족의 우수성을 키워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태양의 찬란한 빛발을 떠나온갖 꽃 만발하는 아름다운 화원을 생각할수 없듯이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주체체육을 생각할수 없다.

새 조선건설의 첫 기슭에서부터 체육을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력사적인 당창건위업을 완성하신데 이어 주체34(1945)년 11월 1일 당보 《로동신문》을 창간하신 바로 그날에 인민대중을 정신육체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된 새 조국건설의 투사로 억세게 키우고 체육의 참다운 발전을 위하여 북조선체육동맹(당시)을 창립해주신 어버이수령님,

식민지노예의 그 암담하던 시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고 통탄하고 빼앗긴 조국에도 금메달이 있는가고 울분을 토하던 우리 인민이 항일의 빨찌산 김대장 안아오신 해방의 봄빛과 더불어 이 땅에 긍지높이 아로새겨온 주체체육발전의 자랑찬 력사는 정녕 가슴뜨겁다.

전쟁의 가렬한 포화속에서도 승리할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강철의 담력과 빛나는 예지에 의하여 싸우는 고지에서, 불비쏟아지는 전선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체육인들도 후방으로, 훈련장으로 소환된 전무후무한 력사적화폭,

오늘도 세상사람들이 잊지 못해하는 1960년대 조선의 천리마축구가 일으킨 세계적인 대파문, 세계탁구녀왕, 륙상계의 화신, 은반우의 혜성, 현대권투의 표본, 세계체조강자…

선군시대는 주체체육의 무비의 견인력을 온 누리에 더욱 뚜렷이 과시한 위대한 력사의 시대이다.

—나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달렸다.

이름없던 조선의 한 녀성체육인이 세계마라손계의 최고무대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자랑차게 들어올리며 거침없이 밝힌 이 승리의 비결에 어찌하여 온 세상이 들끓었는가.

그처럼 어려운 고난과 시련속에서 사회주의선군조선이 순간도 주저앉지 않고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내달릴수 있은 무비의 힘의 억센 밑뿌리, 그 어떤 대적도 감히 우리 공화국의 전진을 가로막지 못하는 비결이 바로 이 짧은 말속에 다 들어있기때문이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 체육인들의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 불굴의 정신력이 안아올린 선군시대의 자랑찬 체육성과는 얼마나 많은가.

16살의 나어린 녀자유술선수가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세계적명성을 떠들던 일본선수를 보기 좋게 타승하고 전승절을 맞이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준것도, 세계를 들어올린 녀자력기강자가 나온것도 선군시대이며 체육에서의 중공업이라고 일컫는 축구무대에서 온 세계를 진동시킨 조선녀자축구의 신화도 선군시대에 펼쳐졌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품에서 자랑스러운 승리의 거목들이 키높이 자라났다.

주체84(1995)년 1월 1일 다박솔초소에 력사적인 자욱을 새기신 그날에 나라의 체육사업을 지도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선군으로 사회주의조국을 지키고 주체체육을 비약의 봉우리에로 끌어올리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뜻, 달리는 야전차에서 무르익히신 절세위인의 위대한 체육발전 구상이 현실로 꽃펴난것이다.

진정 불세출의 선군령장을 높이 모시여 시대도 위대하고 주체체육의 앞길에도 비약의 활무대가 환히 펼쳐졌다.

선군시대와 체육강국건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오늘의 대고조선군과 선군체육열성자회의!

그렇다. 강성대국승리의 포성은 마땅히 체육분야에서도 우렁차게 울려퍼져야 한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 위대한 사상,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로 하여 그 존엄 누리에 빛나는 우리 민족이 무비의 정신력과 슬기와 용맹으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축구강국, 체육강국을 이 하늘아래 우뚝 일떠세울 때는 드디여 왔다.

체육지도일군들과 감독, 선수들, 체육과학연구사들은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사명과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오늘의 대고조선군에 충정과 애국의 한마음을 다 바쳐나가야 한다.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다지고다져온 정신력, 백절불굴의 공격정신을 총폭발시키고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내다보며 최첨단돌파전의 불바람을 거세차게 일으켜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우리 식의 훈련방법을 완성함으로써 나라의 체육기술을 하루빨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경기마다에서 당이 밝혀준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의 우리 식 경기전법의 위력을 최대로 분출시켜야 한다.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선수후비양성체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 나라의 체육을 떠메고나갈 뛰여난 재능을 갖춘 미더운 체육선수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며 체육일군양성기관들과 후방보장부문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불바람을 그 어느때보다도 더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대중체육활동의 도수를 비상히 높여 온 나라가 축구열풍, 체육열풍으로 끓게 함으로써 모든 사회성원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고 어디서나 재능있는 체육인재들을 더 많이 배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낄 승리의 날이 다가오는 오늘 김일성조선의 100년사를 빛나게 총화하고 륭성번영의 새로운 100년대에로 내달리기 위한 력사적인 시기에 체육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선군체육열성자회의를 마련해준 여기에는 우리 당의 웅지가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모두다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오늘의 격동적인 총진군에서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필승의 신념과 의지, 선군시대 체육인의 본때를 남김없이 보여주자!

본사기자 오 철 룡

캄 보 쟈 왕 국 국 왕, 정 부 수 상 조 선 인 민 군 군 사 대 표 단 을 만 났 다

노로돔 시하모니 캄보쟈왕국 국왕이 28일 왕궁에서 이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군사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캄보쟈왕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노로돔 시하모니국왕폐하와 노로돔 시하누크대왕폐하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대표단단장이 전하였다.

국왕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자신의 가장 열렬한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캄보쟈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각하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각하께서 캄보쟈에 돌려주신 지지성원을 영원히 기억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김정일원수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친선적인 조선인민이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하였다.

⁂ ⁂

훈 센 캄보쟈왕국 정부 수상이 28일 정부청사에서 이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군사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캄보쟈국방성 국무비서, 수상대외사업담당 고문 등 관계자들과 캄보쟈왕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훈 센수상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대표단단장이 전하였다.

수상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자신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원수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수상은 앞으로도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여러 분야에 걸쳐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이날 레아 반 캄보쟈왕국 정부 부수상 겸 국방상이 국방성청사에서 조선인민군 군사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산화산공동연구를 위한

북 남 실 무 접 촉 진 행

【개성 3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백두산화산공동연구를 위한 북남실무접촉이 29일 남조선의 문산에서 진행되였다.

실무접촉에서는 백두산화산 활동에 대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백두산화산공동연구를 위한 다음실무접촉은 4월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중국에 가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대표단 출발

【평양 3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에 가는 리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대표단이 29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박성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부위원장과 리학혜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문화참사가 전송하였다.

웰남을 방문하였던 김일성사회주의 청 년 동 맹 대 표 단 귀 국

【평양 3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웰남을 방문하였던 리용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이 29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길철혁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와 웬 딩 즈엉 주조 웰남사회주의공화국 림시대리대사가 마중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피해동포들에게 위문금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일본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지진과 해일로 피해를 당한 재일동포들에게 위문금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28일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대회장에는 《사랑의 위문금을 보내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한결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모두다 뜨거운 동포애, 단합된 힘으로 대지진과 해일로 피해입은 동포구원활동에 나서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부의장, 배익주 부의장겸 민족권위원회 위원장, 고덕우부의장, 박구호 부의장겸 권리복지위원회 위원장, 배진구 부의장겸 사무총국장, 홍인흠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 고문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상임고문, 중앙상임위원회 위원들, 중앙단체, 사업체책임일군들, 지진피해지역의 총련본부 위원장들,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허종만책임부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대규모지진과 해일로 인명피해와 막대한 물질적손실을 입은 재일동포들에게 50만US$에 달하는 사랑의 위문금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솟구쳐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그토록 분망하신 속에서도 재일동포들의 피해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귀중한 위문금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그는 피력하였다.

그는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사랑의 위문금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지진과 해일로 생명과 재산을 잃고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을 겪고있는 피해지역의 동포들을 구원하는 활동을 뜨거운 동포애를 안고서 전조직적, 전동포적으로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총련은 피해지역 조직과 동포들을 돕는 집단적상부상조활동을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총공세로 열기 위한 90일 운동의 중요과업의 하나로 틀어쥐고 박차를 가해나갈것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그는 모든 동포들이 굳게 단결하여 힘과 지혜, 애국애족의 열정을 발휘하여 피해지역의 총련조직과 동포생활을 하루빨리 안정시키며 총련의 전반사업을 상승궤도우에 올려세워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대회에서는 총련 미야기현본부 위원장 리영식, 총련 후꾸시마현본부 위원장 장태호, 재일본조선상공련합회 상임리사회 리사장 리정만,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강추련,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중앙상임간사회 간사장 허용호가 토론하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올리는 편지가 랑독되였다.

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합창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랑의 장정

지금 남조선 각계는 인민의 행복을 위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며 온갖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르며 한없는 격정을 터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진두에 서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가꾸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정의의 길, 애국애족의 길을 걸고계시는 정열의 화신》,《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남조선의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 북의 곳곳에서 선군혁명시대를 상징하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나고있는것은 대고조진군의 최전방에서 무한대한 정력과 애국헌신으로 강성대국건설의 일대 전환을 안아오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특출한 정치실력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라고 격찬하고있다.

서울의 한 재야인사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뛰여난 령도,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북을 강성대국으로 건설해나가고계신다.》고 하면서 그이의 령도로 북은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령마루에 올라 세계앞에 그 대문을 활짝 열 날을 앞당겨오고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한민족복지재단》의 김강련은 자기의 글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전연의 고지들과 전국의 공장, 농촌들을 쉬임없이 찾고계신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고 하시며 선군길을 이어가시는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로고를 말로써는 다 표현할수 없다.》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한 재야인사는 《김정일령수님께서는 정력적인 선군령도로 생사기로에 놓였던 사회주의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적국면,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라고 말하였다.

태양회 회원 김유학은 《민중을 위하시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이북의 이르는 곳마다에는 발전소들과 현대적인 공장, 대기념비들이 련이어 일떠서고있으며 최첨단과학기술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이 일어나고있다.》고 격찬하였으며 서울 종로구에 사는 한 기업가는 《지금 북이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초강도 강행군길을 따라 강성대국의 새시대를 펼치기 위한 대진군을 힘차게 벌리고있다.》고 말하였다.

남조선의 주요언론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 소식을 앞을 다투어 보도하면서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현지지도는 그대로 열정의 불폭탄이 되여 북주민들이 대고조, 대비약을 위한 전투에로 떨쳐나서게 한다.》고 전하였다.

고려대학교의 한 학생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민위천의 정치철학에 기초하여 민중복지시책을 펴시며 이북민중모두를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다. 이북민중이 장군님을 민족의 운명으로 받들며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는 노래를 자랑스럽게 부르는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피력하였다.

자주연구학회 회원 조성일은 자기의 글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단결된 위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전당, 전국, 전민의 동지적단결과 혈연적뉴대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이북군민은 강성대국의 미래를 확신하며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고있으며 강성대국건설에서 세계를 경탄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한 법학교수는 토론회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경제강국건설에 떨쳐나선 북녘민중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기 위한 이북군민의 총진군으로 이 땅에는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질것이다.》라고 확신을 표명하였다.

격정의 마음안고 터치는 이 목소리들은 백두의 당력과 배짱으로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시고 세계정치를 주도해가시며 이 땅우에 통일강국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남녘겨레의 다함없는 흠모심의 분출이다.

본사기자 김현철

강성대국을 향한 대고조시대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글 발표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김현환이 3일 《강성대국을 향한 대고조시대》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글에서 공화국을 방문하여 여러곳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지금 이북은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제끼기 위하여 최고령도자와 당, 군대와 대중이 일심단결하여 대고조시대를 개척해나가고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해주는것은 총비서로서뿐아니라 당원으로서 혁명앞에 지닌 자신의 의무라고 하시였다.

이처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지니신 이북의 최고령도자께서는 눈보라, 험한 산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강행군길을 걸고계신다.

령도자와 일군들, 군대, 민중이 이처럼 하나로 일심단결되여있는 나라가 이 세상 어디에 또 있는가?

나는 이북이 어떤 나라인지 많은 생각을 하는 과정에 제국주의와 대항하여 승리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북의 주체사회주의의 길, 선군의 길밖에 없다는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였다.

이북은 일찌기 1946년에 토지개혁을 시작으로 사회주의혁명을 성공시켰고 강력한 선군정치로 제국주의강적들을 물리칠수 있는 핵억제력을 보유하였으며 군민일치를 이룩한 난공불락의 요새로 되였다.

이북은 인공지구위성을 자체의 힘으로 제작하고 성과적으로 발사하였다. 또한 주체철과 주체섬유, 주체비료를 대량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고 이북식의 CNC화를 모든 경제분야와 생산공정들에 구현하고있다.

동방의 하늘아래 그 어떤 제국주의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정의의 산악으로 숭엄하게 서있는 주체사회주의나라 이북, 슬기롭고 강의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계의 존경과 매혹을 불러일으키는 이북민중, 동서고금의 가장 황홀한 번영이 바로 이북땅에 펼쳐져야 하며 제일 풍요롭고 눈부신 복락은 바로 이러한 이북민중에게 차례져야 한다.

지금 이북은 조선반도에서 벌어지고있는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맞받아 총에는 대포로, 핵무기에는 그보다 더 강력한 최신무기로 대답하며 자주성과 존엄을 지키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이북을 붕괴시켜보려고 해도 사회주의의 거목을 흔들지 못할것이다.

앞으로 세계는 자본주의의 독점적인 기술만능과 거품성장, 번쩍거리는 사치와 거만성을 이북식첨단기술과 아름다운 문명, 창조와 향유로 누르고 승리를 거두는 이북민중의 자존심과 주체사회주의의 강한 위력을 똑똑히 목격하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대결자세를 버려야 한다

지금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내외의 지향과 요구는 날로 강렬해지고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남관계는 대결상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그 원인은 남조선당국의 구태의연하면서도 반통일적인 대결자세에 있다.

북남관계는 대화가 없이는 결코 개선될수 없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자들은 그 무슨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느니, 《진정성》과 《태도변화》가 없다느니 하는 고리타분한 소리를 고장난 축음기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늘어놓으면서 대화에 나서려 하지 않고있다. 그들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추가도발방지확약》을 북남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집요하게 내걸면서 대화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한편 말로는 《대화의 문은 열려져있다.》고 하면서도 대화는 고사하고 도리여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을 노린 전쟁도발소동을 전례없이 강화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지어 우리의 아량있는 대화제의에 대하여 《전술적변화》니 뭐니 하고 모독하면서 도발적으로 처신하고있다. 한마디로 남조선당국자들에게는 북남대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것이 문제이다.

지금 북남관계문제가 풀기 어려운 매듭같지만 진정한 동족의식, 민족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사명감, 평화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마주앉아 해결할수 있다. 수십년간 꽁꽁 얼어붙어 랭기만을 뿜던 북남관계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이후 순식간에 화해와 단합, 우리 민족끼리관계로 전환되였던 사실 하나만 놓고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의 대결자세는 여전하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말로는 《대화》를 운운하고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대화에 불성실하며 그 막뒤에서 반공화국모략과 북침전쟁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런 상태에서 북남대화가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북남관계는 민족의 운명, 조국통일의 전도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민족내부문제인 북남관계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주의 원칙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해결될수 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자기 동족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한다. 민족애를 떠나 동족을 위한 좋은 일을 할수 없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의 개선을 생각할수 없다.

동족을 적으로 대하며 대결을 추구한다면 북남관계는 어차피 파국과 전쟁의 길로 치닫게 된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분렬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북남관계가 여전히 악화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현실은 남조선당국이 대결자세를 고집할 경우 북남관계의 전도는 밝아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북남관계의 악화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백해무익하다. 시대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북남관계는 시급히 전환되여야 한다. 그러자면 남조선당국이 대결의 립장으로부터 화해와 단합, 통일의 립장으로 돌아서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이 절박한 시대적과제로 나서고있는 지금 누구도 그에 역행하는 행위를 할 권리가 없다. 그러한 망동은 두고두고 매국반역적죄악으로 규탄받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에 대한 옳바른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관계개선을 위한 길에 주저없이 나서야 한다.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남조선당국은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을 고집하는것이 용납 못할 민족반역행위로 된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과학적근거가 전혀 없는 《어뢰공격》설

남조선 각계와 해내외동포들 주장

《천안》호사건이 일어난지 1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에서 사건을 《북어뢰공격》에 의한것으로 결론을 내린 이른바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반박하는 목소리들이 다시금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지난 24일 남조선《국회》에서는 《천안》호사건 1년과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다.

여기에서 재미동포과학자인 서재정교수는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호가 《북어뢰공격》에 의한 수중폭발로 침몰했다고 결론했지만 그것은 전혀 타당치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수중폭발이 있었다면 파편, 충격파, 거품효과, 물기둥, 고열 등 다섯가지 현상이 있어야 하는데 단 한가지도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그는 수중폭발이 립증되자면 수많은 파편이 선체내에 존재해야 하지만 어떤 파편도 찾아볼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수중폭발이 있으면 반드시 충격파가 일어나 선체바닥이 크게 변형되여야 하는데 바닥은 충격파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깨끗하며 선체내의 기계, 기구, 탄약상자들도 쓰러지지 않은채 가지런히 정렬되여있는 사실 그리고 형광등이 멀쩡하게 보존되고 생존자나 시신에서 청각이 파괴된 현상이 없는 사실 등을 제시하면서 충격파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최종보고서》는 거품효과로 《천안》호가 두동강 났다고 했지만 실제로 배는 함수와 함미, 가스타빈으로 세동강 났다고 하면서 거품효과라면 세동강이 날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물기둥도 없었고 수중폭발시 고열의 흔적 역시 있어야 하는데 화상환자도 없다고 하면서 그는 결과적으로 수중폭발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하였다.

다른 한 재미동포과학자인 리승헌교수는 《결정적증거》라고 하는 흡착물질은 폭발의 결과로 생긴것이 아니라 천천히 형성된 침전물질이라는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였다고 하면서 진실을 해명하려면 《국회국정조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천안》호와 어뢰추진체를 련결하는 유일한 물증인 흡착물질에 대한 자체 실험과 《민군합동조사단》자료를 분석한 결과 흡착물질이 폭발과 관련이 없는 자연상태에서 부식 등으로 생긴 수산화알루미니움이라고 하면서 어뢰추진체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감추기 위해 내세운 허깨비라고 주장하였다.

《언론3단체 〈천안〉함검증위원회》의 한 검증위원은 《민군합동조사단》이 제시한 근거들은 증거력을 상실했다고 하면서 그 리유를 조목조목 제시하였다. 그는 특히 폭발원점과 《천안》호침몰지점의 거리와 각도 등을 세밀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당국의 발표내용이 과학적으로 성립될수 없음을 론증했다. 그는 해군지휘전술통제체계, 어뢰설계도CD, 수조폭발실험추출물질, 조개침전물질분석결과 등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당국에 요구했다.

남조선의 안동대학교의 한 교수와 재카나다동포과학자도 흡착물질에 대한 시료분석결과 그것은 폭발로 만들어진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민주로동당 대표는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는 술한 의혹을 남겼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북이 안했으면 누가 했단 말이냐.》는 막연한 소리만 하면서 오히려 의혹만 불구었다고 그의 해소를 요구하였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당국은 〈천안〉호가 〈북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그것은 남조선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공인받지 못하고 부실조사라는 술한 비판에 직면하고있는것이 현실이다. 조사단을 파견했던 로씨야가 중국 등에 〈정부〉조사결과와 다른 분석결과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고 도날드 그레그 전 남조선주재 미국대사도 남조선당국이 보고서내용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아 객관성이 립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이 〈천안〉호사건 1년을 계기로 〈정부〉조사에 의문을 제기한 인사들이나 단체들을 맹비난하고있는것은 앞뒤가 뒤바뀌였을뿐아니라 언론의 역할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이러한것들은 아직도 《천안》호사건을 《북어뢰공격》에 의한것으로 우겨대며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광분하는 남조선당국을 비난하며 진실을 밝힐것을 주장하는 각계의 목소리들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들은 그 무슨 《천안》호사건조사결과라는것이 동족을 모해하고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남조선당국이 꾸며낸 유치하고 모략적인 날조품이라는것을 다시금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라설하

급속히 추진되는 무력증강계획

얼마전 남조선에서 그 무슨 《국방개혁 307》이라는것이 공개되였다. 각 군종들사이의 《합동성강화와 적극적억제능력확보, 국방효률성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 계획에서 기본은 무력증강이다.

이에 따라 남조선군부는 무력증강의 우선순위를 대잠수함무력의 강화와 무인정찰기 및 스텔스전투기의 도입, 대포병탐지레이다와 합동직격탄의 배비, 싸이버사령부의 조직, 그 누구의 《특수부대》에 대한 대응무력강화 등으로 조정하였다. 호전광들이 그 리유를 그 무슨 《도발과 비대칭전력에 따른 대비》라고 광고하였지만 그것은 북침전쟁도발을 꿈꾸는자들의 한갓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남조선군부가 새로 개발한 로케트탄과 미싸일격파체계를 《K-2》땅크에 탑재하려 하는것도 스쳐지날수 없다. 3차원추적탐지레이다, 영상탐지추적기, 통제콤퓨터, 발사장치, 파편형대응탄 등으로 구성되여 일명 《능동방호체계》로 불리우는 이 체계는 땅크들과 기타 대상물들에 대한 휴대용로케트공격에 대응하기 위한것이라고 한다. 남조선호전광들은 미국과의 공동연구로 개발한 대함유도무기 《로거》를 조선서해 5개 섬일대에 배비하여 우리측 함정들을 공격하려고 꾀하고있다.

한편 남조선호전광들은 그 누구의 《특수전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목밑에 《전담부대》라는것을 내오기로 하였으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들에도 특수작전부대들을 전개하려 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최근 피뢰군부는 현재 300km로 제한된 탄도미싸일의 사거리를 800km로 늘여 우리 공화국의 전지역을 타격할 흉계를 꾸미면서 미국과 그와 관련한 협상을 벌리려 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미국제고고도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와 스텔스전투기의 조기도입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있다. 남조선국방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73개 《국방개혁》과제에 《글로벌 호크》와 스텔스전투기의 조기도입계획을 포함시키였으며 방위사업청은 이미 미국에 《글로벌 호크》에 대한 구매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글로벌 호크》도입을 위해 올해에 편성된 《국방예산》만도 무려 452억 5 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미국 시애틀에 있는 한 군수공장에서는 피뢰공군이 미국으로부터 반입하게 될 조기경보통제기 《E-737》기가 언론에 공개되였다. 일명 《날아다니는 전투지휘사령부》로 불리우는 이 조기경보통제기를 남조선호전광들은 올해말중에 4대 도입하여 하루 24시간 우리측 지역들을 공중정찰하는데 써먹으려 하고있다. 그런 가운데 남조선당국은 얼마전 미국으로부터 여러대의 《F-15K》전투기들을 또다시 끌어들이였다. 이로써 피뢰공군이 보유한 《F-15K》전투기는 총 47대로 되였다. 피뢰군부는 조선반도 전지역에서의 작전수행이 가능한 이 전투기를 래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모두 20여대 추가도입하려 하고있다.

해상무력증강소동도 심상치 않다. 대잠유도무기 《홍상어》가 구축함들에 실전배치되고있으며 무장직승기를 주력으로 하는 해병대사령부직속 항공단창설이 본격화되고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은 조선서해 5개 섬일대에 해병대병력 2 000여명을 증강하는 방안도 이미 확정하고 실천에 옮기고있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무분별한 무력증강소동은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흉계의 발로이다. 그것은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를 해치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더한층 격화시키는 호전적망동으로서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본사기자 허영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대학생들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극심한 생활고에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대학생들이 한해에 200~300명에 달하고있다.

대학생들은 학자금대출리자가 날이 갈수록 엄청나게 불어나 빚더미에 올라앉고있으며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고있다.

그리하여 대학생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좌절과 비관, 절망, 우울에 빠지고있다.

지난 2월 남조선강원도 강릉에서 한 대학생이 학자금대출서류와 복권 2장을 유서대신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접한 많은 대학생들이 자기들의 처지를 개탄하며 남조선사회를 저주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정리해고철회를 위한 련대투쟁 호소

남조선의 70여개 정당, 시민단체, 종교단체들로 구성된 정리해고철회 및 희생자범국민추모위원회(추모위원회)가 25일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업주들의 부당한 해고조치에 의해 쫓겨난 로동자들이 자살하는 사태가 계속 빚어지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로동자들에게 차례지는것은 정리해고밖에 없다고 그들은 개탄하였다.

그들은 로동자들을 죽음에로 내모는 현 《정권》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힘을 합쳐 투쟁하자고 호소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회하라!》등의 구호를 웨쳤다.

한편 추모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매일 저녁 서울에서 초불집회를 가지고 반인민적로동악정의 철폐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리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당국의 반인민적약정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북방한계선》의 비법성 폭로

미국의 대학교수 서재정이 23일 인터네트신문 《프레시안》에 남조선피뢰당국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의 비법성을 폭로하는 글을 실었다.

그는 글에서 1974년 1월 미중앙정보국이 작성한 《서해한국도서》라는 비밀문서에 《북방한계선》을 설정한 목적이 특별한 허가없이 이 선 이북으로의 항해를 금지함으로써 사고를 막는데 있다는 내용이 밝혀져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사고방지라는 원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즉시타격준비태세》와 《선조치》라는 표현만이 횡행하고있어 이 선이 군사적충돌의 원인, 조선반도전체를 전쟁의 참화에로 몰아넣을수 있는 불씨가 되여버렸다고 그는 비난하였다.

지난해에는 함선침몰사건을 구실로 미군항공모함이 《북방한계선》주변수역에 들어와 새로운 세계대전위기까지 초래하였다고 그는 규탄하였다.

그는 미중앙정보국 문서에 《북방한계선》이 확실히 북의 령해라고 추정되는 수역을 가로지른다고 씌여있는것은 그때 벌써 이 선이 분쟁의 씨앗이 될수 있음을 경고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호전광들의 대규모 해상군사연습소동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피뢰해군이 《천안》호침몰사건이 일어난지 1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25일부터 사흘간에 걸쳐 조선동, 서, 남해에서 광란적인 대규모해상군사연습을 감행하였다.

피뢰호전광들은 30여척의 함정, 해상초계기와 직승기를 비롯한 해군의 모든 무력을 동원하여 해상공방전과 함포사격훈련 등을 발광적으로 벌렸다.

특히 26일 밤에는 전반해상에서 일제히 폭뢰투하 등 대잠수함전훈련을 벌려놓으며 전쟁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조선중앙통신】

당국의 파쑈적폭압을 규탄

남조선에서 청년학생들의 학술활동의 자유마저 짓밟는 당국의 파쑈적폭압을 단죄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지난 21일 남조선당국은 대학생경제학술단체의 전 회장을 비롯한 핵심성원 3명을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체포하고 이들을 포함한 단체성원 9명과 이전 서총련 의장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들의 체포에 항의하던 대학생 51명도 전원 련행되여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남조선 각계에서는 단체가 결성되여 공개적으로 활동한지 4년이 넘는 지금 경찰이 수사에 나선 점이 리해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당하게 체포된 사람들을 당장 석방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지난 22일 남조선의 청년련대는 성명을 발표하여 경찰당국이 대학생경제학술단체 성원들을 체포, 련행하고 그들의 집을 수색한데 대해 언급하면서 당국이 학술활동을 벌린 단체에까지 《리적》의 굴레를 씌운다면 이 땅에서 《리적단체》로 불리우지 않을 조직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고 반문하였다. 그러면서 성명은 당국이 탄압을 중지하고 체포한 대학생들을 전원 석방하며 학문의 자유를 가로막는 《보안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앞서 남조선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는 《대학생학술단체까지 탄압하는 〈정권〉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단체는 성명에서 대학생들이 조직한 경제연구, 학술단체를 《리적단체》로 몰아대면서 《보안법》위반혐의를 적용하는 경찰당국의 처사에 분노를 표시하였다. 이번 사건은 파렴치한 조작극이며 앞으로 대학생들의 학술모임뿐아니라 다양한 정치활동까지 《보안법》을 앞세워 대대적으로 탄압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단체는 당국이 시대착오적인 악법을 즉시 폐지하고 《리적단체》조작행위를 중지하며 련행한 학생들을 당장 석방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당을 비롯한 남조선야당들은 검찰과 경찰이 다가오는 재보충선거를 앞두고 진보세력탄압에 나섰다고 단죄규탄하였다. 언론들도 《이들이 인터네트에 올린 자료들을 보면 학술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 시점에서 사문화된 〈보안법〉의 〈찬양, 고무죄〉조항을 다시 적용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라고 하면서 청년학생들의 학술활동을 탄압하는 당국의 행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본사기자 복은희

침략세력의 위험한 군사전략적기도

미국은 말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하여 곧잘 외우면서도 행동은 딴판으로 하고있다.

미국이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무모한 전쟁연습들을 련이어 벌리고있는 사실 등이 그것을 립증해준다.

더우기 문제는 미호전세력들이 그 누구의 군사적《위협》이니, 《도발》이니 하면서 단호한 《대응》에 대해 떠들어대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전쟁연습들이 맹렬히 벌어지고있는것이다.

지난 기간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치군사적지배권확립을 위해 여러가지 《위협》론을 내돌리였다. 그 목적은 저들의 대조선침략야망을 은폐하고 새로운 조선전쟁도발책동을 합리화하자는데 있었다.

지금 미호전세력이 떠드는 그 누구의 군사적《위협》, 《도발》론의 리면에는 여러모로 타산된 흉악한 속심이 깔려있다.

국제사회계는 유관측들이 조선반도에 조성된 험악한 사태를 해소하고 안정된 안보환경을 마련할것을 기대하고있다. 이러한 대세를 반영하여 우리는 대국적립장에서 대범하게 주동적으로 혁신적이고 공명정대한 대화와 평화제안들을 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결만을 추구하고있다. 미국의 반평화적인 행위는 세계적인 항의,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에 불안을 느낀 미호전세력은 세계민심과 대세의 흐름을 어떻게 하나 역전시켜보려 하고있다. 그래서 꾸며낸 구실이 우리의 군사적《위협》과 《도발》론이다.

미호전세력이 우리의 군사적《위협》 등을 여론화하는 속심은 또한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권위와 존엄을 훼손시키고 그 영향력을 막아보려는데 있다.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권위와 위신은 날로 높아지고있다. 국제적판도에서 우리 당의 불패의 선군정치를 따라배우기 위한 움직임이 강화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영향력은 비상히 커가고있다. 이러한 사태발전앞에서 커다란 위구심을 품고 긴박감에 사로잡히고있는 미제는 우리의 대외적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국제적고립과 압박분위기를 몰아오려 하고있다. 우리의 그 무슨 군사적《위협》과 《도발》론은 이로부터 고안된것이다.

미국은 대국들의 전략적리해관계가 얽혀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우위를 유지강화하고 주도권을 틀어쥠으로써 독점적지배주의야망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이에 있어서 미호전세력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는것을 첫째가는 목표로 삼고있다.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압살하고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하여 지배와 통제권을 확대하려는것이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 대아시아전략이다. 이를 위해 미호전세력은 그 누구의 군사적《위협》과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운운하면서 남조선과 그 주변에 기동타격무력을 증강배치하는 한편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리고있다. 미국은 이 지역에 항공모함타격집단까지 항시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러한 군사적움직임들이 미제의 대조선군사전략에 따른것이라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미국은 무엇보다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작전준비를 서두르고있다. 미국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 대규모의 침략무력을 집결시키고있는것도, 미군과 남조선괴뢰군의 방대한 무력에 대한 통일적인 군사작전지휘체계를 완성하고있는것도 다 그와 관련된다. 특히 주목되는것은 미제가 미군특수부대까지 동원하여 우리의 핵 및 미싸일기지와 시설 등을 타격하기 위한 모험적인 시험군사작전을 벌리고있는것이다.

이번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주되는 목적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은 한 방송에 출연하여 그 누구의 핵 및 미싸일《위협》에 대해 운운하면서 《타격을 준비해야 한다.》고 줴쳤다. 이것은 우리의 핵 및 미싸일기지와 시설들에 대한 미제의 선제타격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인것으로서 조선반도정세를 핵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는 매우 위험한 책동이다.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서의 미호전세력의 무력집결과 전쟁연습강화책동은 제2조선전쟁도발을 전제로 한것이다. 우리에 대한 미제의 선제공격은 시간문제이다.

미호전세력의 대조선군사전략적기도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자는데 있다. 미호전광들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기본목적이 우리의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것이라고 로골적으로 공언하고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가 하는것은 매개 나라 인민의 자주적권리에 속하는 문제이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이 스스로 선택한것이다.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생명이며 삶의 보금자리이다. 때문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그것을 수호하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어째보려고 하는 적들의 책동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미국에 어떤 제도를 세우라고 간참한적이 없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제도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붕괴》를 꾀하고있다.

결국 우리와 미국과의 대결은 힘의 대결인 동시에 사상과 리념, 제도상의 대결로 되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를 《붕괴》시키기 위해 미국은 지금껏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썼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실패하고말았다. 이제 미국이 써볼수 있는 수는 제2조선침략전쟁계획을 실행하는것뿐이다. 다시말하여 미국은 힘으로 우리의 제도를 기어코 《붕괴》시키려 하고있다. 미호전세력이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북침전쟁연습을 벌리는 등 우리에 대한 군사적《대응》놀음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그 전주곡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있을수 있는 모든 사태를 예측하고 그에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미제의 대조선군사전략적기도는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는 망상이다.

미호전세력은 핵무기보다도 위력한 정신력과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가지고있는 우리 공화국에는 그 어떤 침략적인 군사전략적기도도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김 종 손

평화파괴자의 정체

최근 스웨리예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미국이 무기판매에서 제1위를 차지한다고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미국의 무기수출량이 2006—2010년 세계무기수출량의 30%로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이것은 미국이야말로 세계최대의 무기장사군일뿐아니라 위험한 전쟁원흉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은 세계 거의 모든 지역들에 무기들을 팔아먹고있다. 그중에서도 동아시아, 중동과 같이 군사정치정세가 첨예한 지역들에 더 많이 수출하고있다. 미국의 무장장비들이 대량적으로 수출되는 이 지역들은 전쟁과정에 있거나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발발할수 있는 위험성을 항시적으로 안고있다.

미국은 단순히 상업적리익을 위해서 무기를 수출하고있는것이 아니다. 미국은 거대한 군수독점체들의 배를 불리워주는것과 동시에 해당 지역에서 힘의 불균형과 군사적대결을 조성하고 그것이 곧 무력충돌과 전쟁으로 이어지도록 할 목적으로 각종 무기들을 대량 팔아먹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미국의 무기수출은 본질에 있어서 전쟁수출이다.

분쟁을 격화시키고 전쟁을 조장시킨 다음 이런저런 구실을 내대며 해당 지역에 미군무력을 전개하거나 그 지역을 군사적으로 가로타고앉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침략수법이다.

오늘 조선반도가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가장 위험한 열점지역으로 전변된것도 바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남조선에 대한 무기수출정책의 산물이다.

스웨리예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남조선이 최근 5년간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입하였다. 그중에는 미국산 무기가 제일 많다고 한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미국으로부터의 전쟁장비구입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상전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놀아나고있기때문이다.

미국산 무장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는것으로 하여 남조선은 상전에게 더욱더 군사적으로 예속되고있으며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정책프로그람에 따라 움직이는 전쟁인형으로 되고있다.

이로 하여 남조선은 미제의 전초기지, 병참기지로 완전히 전락되고 북침전쟁위험은 증대되고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걸핏하면 그 누구의 《안보위협》타령을 늘어놓고있다.

미제가 우리의 자위적군사력강화조치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안전보장에 《위협》으로 된다고 떠들어대는것은 저들의 침략전쟁책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이며 세계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기만술책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제공, 대량살륙무기판매, 미국과 남조선이 벌려놓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 등은 《방위》를 위한것이고 우리가 이에 맞서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고있는것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안전보장에 《위협》으로 된다는 소리는 그야말로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격의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미국은 그 어떤 술책으로써도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 군비경쟁을 지속시키는 주범으로서의 정체를 감출수 없다.

리 경 수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한 노력

농경지수리공사와 물문제해결노력

중국 섬서성에서 알곡생산을 안전하게 늘이기 위해 농경지수리공사에 힘을 넣고있다.

성에서는 앞으로 3년동안 수리공사를 통해 30만무의 관개면적을 더 확보함으로써 그 총면적이 2 000만무이상에 달하게 할것을 계획하고있다.

한편 중국 천진시에서 긴장한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다물정화장들을 건설하여 운영하고있다.

현재 시의 하루 바다물정화능력은 21만 7 000t에 달한다.

시에서는 2015년까지 그것을 48만t으로 확장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중국에서 천진시는 물이 부족한 곳의 하나이라고 한다.

에네르기안전조치

까리브공동체 성원국들이 지역의 에네르기안전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24일 공동체 에네르기상회의에서는 세계적인 원유가격이 상승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지역적인 원유가격을 규정하고 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에네르기정책이 작성되였다.

성원국들은 원유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제조업부문 생산 증가

싱가포르에서 올해 2월에 제조업부문 생산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8% 증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반도에 평화가 보장되여야 한다

에스빠냐정계인사 담화 발표

에스빠냐인민공산당 국제관계비서 아스토 가르씨아가 최근 조선반도정세와 관련하여 15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미국이 1945년에 저들의 전략적리해관계로부터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함으로써 조선반도를 분렬시킨데 대하여 단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도발책동을 로골화하고있다.

미국이 《북의 위협》에 대해 떠드는것은 저들의 남조선강점을 합법화하며 조선반도를 동북아시아침략을 위한 전략적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로부터 《천안》호사건과 같은 모략을 꾸민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시아의 반제력량에서 주요역할을 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연습이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목적으로 각종 무기들을 동원하여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를 위협하는 이와 같은 전쟁연습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선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도 조선반도에 평화가 보장되여야 한다.

우리는 적들의 군사적대결에 단호하게 맞서나가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반제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사회주의건설위업을 완성하며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하는것은 현시기 조선인민의 목표이며 이를 위한 투쟁은 세계혁명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련대성을 표시한다.

서방의 제재조치를 비난

벨라루씨외무성 공보국장이 22일 자기 나라에 대한 서방의 제재조치를 비난하였다.

유럽동맹이 최근 벨라루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주권국가에 압력을 가하려는 로골적인 행위로 락인하였다.

그는 유럽동맹이 국제법규범과 원칙들을 무시하고있다고 까밝히고 제재정책이 전망이 없다는것은 이미 수많이 증명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물문제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

메히꼬대통령 펠리뻬 깔데론 이노호싸가 23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물문제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공업화가 진척됨에 따라 물에 대한 수요가 보다 늘어나고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물문제를 국가의 안전을 위한 선차적인 문제로 내세우고있다고 말하였다.

정부가 물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작성한데 대해 밝히고 그는 그것이 나라의 물자원을 보존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쏘치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준비사업 적극 추진

얼마전 로씨야의 쏘치에서 국제산스키경기대회가 진행되였다. 이 경기대회는 로씨야에 있어서 의미가 깊은 경기대회였다. 그것은 2014년에 쏘치에서 진행되게 될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위해 새로 건설한 스키주로를 국제체육계에 선보이고 올림픽주로를 시험하는 첫 국제경기로 되기때문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2007년에 로씨야는 2014년에 쏘치에서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주최할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지금까지 로씨야는 여름철올림픽경기대회를 한번 주최한적은 있으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주최하게 된다. 그런것으로 하여 로씨야는 쏘치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준비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적극 추진하고있다. 로씨야의 관계부문은 이번 국제산스키경기대회를 지금까지 진행하여온 쏘치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준비사업정형을 중간총화하는 기회로 삼았다.

쏘치의 휴양지에 새로 건설된 스키주로는 매우 복잡한것으로 알려져있다. 스키주로의 연장길이는 3km가 넘고 높이차이는 1 000m, 구배각도는 거의 180°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게 가파롭고 높이차이가 심하면서도 높은 속도를 낼수 있는 주로는 아직까지 로씨야에 없다고 한다. 이번 국제산스키경기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처음에는 무섭기도 했으나 스키주로가 나무랄데 없는데 대하여 만족을 느끼면서 진짜 올림픽주로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현재 쏘치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위한 준비사업은 계획대로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2014년 쏘치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이 진행되게 될 제일 중요한 대상인 중앙경기장을 비롯한 올림픽대상물들이 일떠서고있으며 도로와 철도, 비행장, 호텔들이 건설되고있다. 이메레찌계곡에 올림픽공원이 건설되고있다.

쏘치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준비사업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큰 관심이 돌려지고있다. 아들레르와 쏘치비행장사이를 잇는 급행렬차가 올해말부터 시험운영된다. 자동차와 기차가 같이 운행하게 되여있는 《아들레르—알뻬까—써비스》도로건설도 계획대로 추진되고있다. 이 도로는 쏘치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참가자들과 손님들을 크라스나야 뽈랴나경기장들과 올림픽공원의 얼음궁전들에로 실어나르게 된다. 총연장길이가 125km인 이 도로에는 6개의 굴과 36개의 철길구조물, 31개의 다리가 건설되게 된다. 이 도로를 리용하면 올림픽공원에서 크라스나야 뽈랴나까지 30분동안에 운행할수 있다고 한다.

이 도로건설은 2013년 4월까지 끝날것으로 예견되여있다. 쏘치에 새로운 비행장이 준공되였다. 벌써 국제항로들을 접수하고있는 이 비행장은 최신식으로 설계되였다. 이 비행장은 올림픽대상물중에서 맨 처음으로 준공되였다. 쏘치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참가자들과 손님들이 바로 이 비행장을 리용하게 된다. 이 비행장은 현재로서는 시간당 1 600명정도의 봉사능력을 가지고있으나 2014년에는 시간당 약 4 000명정도의 봉사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로씨야는 올림픽대상물들을 건설하는 사업과 함께 이미 건설된 올림픽대상물들에서 국제경기들을 진행하여 경기조직과 안전, 교통, 봉사 등 쏘치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주최를 위한 경험을 축적하려 하고있다.

로씨야의 한 부수상은 이번 국제산스키경기대회에 참가한 선수들과 체육애호가들이 스키주로와 봉사의 질, 쏘치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준비수준에 만족을 느끼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자기 나라가 2014년 쏘치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스크바발 본사특파기자 최 학 철

산림과 생태환경보호를 위하여

유엔에서는 2011년을 세계산림의 해로 지정하였다.

이것은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람벌과 생태환경파괴 등으로 산림손실현상이 우심해져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2000년이래 세계적으로 해마다 평균 520만ha의 산림이 없어졌다.

또한 토지의 사막화로 1990년이래 매해 약 600만ha의 농경지가 류실되여 농업생산이 감소되고있으며 2 300여종의 동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있고 년간 420억US$이상의 경제적손실이 초래되고있다 한다.

이러한 실정으로부터 아시아나라들에서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 국가적인 관심을 돌리고있다.

파키스탄대통령 아씨프 알리 자르다리는 더 많은 나무를 심고 산림을 보호하는것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보다 훌륭한 생태환경을 유지할수 있는 근본열쇠로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인민이 나무심기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국토를 더욱 푸르게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는 나무가 사람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주민들 특히 청소년들이 나무심기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나라의 산림자원을 적극 보호하며 산림을 파괴하는 현상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시아나라들에서는 전군중적운동으로 나무심기운동을 활발히 벌려 산림면적을 늘이고있다.

중국에서는 각계층 주민들이 의무식수활동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절강성에서는 지난 30년동안 연 4억여명이 15억그루의 각종 나무를 심은 결과 현재 성의 산림조성률은 60.58%에 달하고있다.

청해성에서는 지난해 연 285만 2 900명의 각계층 군중이 전민의무식수활동을 통해 1 391만 3 000그루의 각종 나무를 심었다.

파키스탄에서는 2015년까지 해마다 2차례의 전국적인 나무심기운동을 벌리기로 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올해에 30만~40만ha의 면적에 나무를 새로 심을것을 계획하고 양묘장들을 확장하며 각종 나무모들을 대대적으로 키워내고있다.

아시아나라들에서는 또한 토지의 사막화방지를 생태환경보호의 하나로 간주하고 이 사업을 꾸준히 벌리고있다.

중국 내몽골자치구에서는 지난 10년동안 2억 6 000만무의 사막화된 땅에 많은 나무들을 심었다.

요르단에서는 《록색장벽》형성계획에 따라 수도로부터 남부의 항구도시 아까바까지 사이에 있는 약 400㎢에 달하는 사막지대에 여러가지 나무를 심고있다.

몽골정부는 2005년부터 약 1 000km의 구간에 총 9억 5 000여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록색장벽》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내밀고있다.

산림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아시아나라들의 노력으로 대륙의 록화환경이 날로 개선되여가고있다.

규탄받는 이스라엘

—요르단외무성 대변인이 23일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만행을 신랄히 단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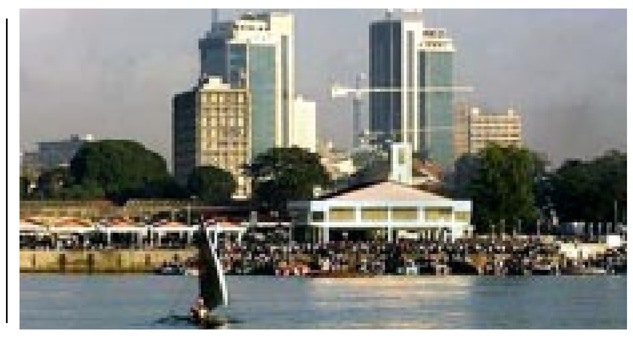
최근 이스라엘이 가자지대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계속 확대하여 무고한 팔레스티나인들을 살해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은 당장 중지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국제공동체가 중동평화를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것을 호소하였다.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 아미라가 23일 이스라엘수상의 망발을 규탄하였다.

22일 이스라엘수상이 민족적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팔레스티나민족당국의 노력을 헐뜯는 비방중상을 늘어놓은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단호히 배격하는 민족당국의 립장을 밝히고 팔레스티나민족당국은 이스라엘의 강점을 끝장내고 팔레스티나인민의 독립국가건설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민족적단결을 이룩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탄자니아의 도시

일본에서 방사성물질 계속 루출, 독성이 강한 플루토니움 발견

일본의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물질이 계속 루출되고있다.

28일 내각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2호원자로타빈실물웅뎅이에서 높은 농도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격납용기에서 물이 새여나오고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1호와 3호원자로건물의 물에서도 기준수치의 1 000배에 달하는 방사성물질이 측정되였다.

이보다 앞서 26일 원자력발전소부근 바다물에서 측정된 방사성물질이 기준수치의 1 250배가 넘는것으로 확인되였는데 24시간이후에는 그보다 600배 더 많은 1 850배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였다.

그러한 속에 29일 도꾜전력회사는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구내 5개소의 토양에서 독성이 강한 플루토니움이 발견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날 내각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분명히 연료봉에서 나오고있을것이다. 이는 연료봉이 어느정도 용해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매우 심각한 사태이다.》라고 인정하였다.

문제의 심각성은 플루토니움이 방사성요드나 세시움과 같은 다른 방사성물질보다 인체에 미치는 독성이 더 강하다는데 있다.

일본에서 루출된 방사성물질이 다른 나라와 지역들에 계속 퍼지고있는 가운데 남조선에서는 29일현재 서울 등 8개 지역에서 방사성요드가 검출되였다.

지구대기중의 방사성물질을 관측하는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기구준비위원회는 이미 미국과 유럽에로 퍼진 방사성물질이 앞으로 2~3주일내에 세계를 한바퀴 돌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으면서 그러나 방사선량이 매우 적은것으로 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편 28일 오전 10시까지 지진과 해일에 의한 사망자수는 1만 872명으로 증대되고 행방불명자수는 1만 6 244명, 부상자수는 2 776명에 달하였다고 일본경찰청은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국제적분쟁문제해결을 위한 긍정적움직임

분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노력이 강화되고있다.

지난 5일 로씨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야대통령들이 로씨야의 쏘치에서 나고르노—까라바흐문제조정과 관련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나고르노—까라바흐문제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야사이의 령토분쟁문제이다.

이번에 3자공동성명이 채택됨으로써 나고르노—까라바흐분쟁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한걸음 전진하게 되였다.

나고르노—까라바흐분쟁문제는 1990년대초에 발생하였다. 그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야사이에 여러차례의 충돌이 있었다. 지난해에도 쌍방사이에 치렬한 싸움이 벌어졌었다. 이로 하여 나고르노—까라바흐분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국들의 노력이 강화되게 되였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성명은 그 연장선우에서 채택된것으로서 이 지역에서 충돌과 대결을 끝장내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유관국들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수 있다.

공동성명은 지난해 10월에 채택된 3자공동성명의 리행정형을 토의하고 포로교환문제를 비롯한 현안문제들을 최단기간내에 결속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또한 공동성명에는 모든 분쟁문제를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며 정화지대에서 충돌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유럽안전협조기구의 조사를 진행할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였다.

이번에 채택된 로씨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야의 공동성명은 분쟁문제를 대화와 협력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것이 절박한 과제로 되고있다는것을 다시금 보여준다.

뛰르끼예와 그리스도 에게해분쟁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있다.

지난 1월 뛰르끼예수상은 두 나라가 에게해를 평화와 친선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성과를 거두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런가하면 그리스수상은 두 나라가 협조를 위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있다고 강조하고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함께 노력한다면 쌍방사이의 분쟁문제를 능히 해결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에게해의 섬들을 놓고 뛰르끼예와 그리스는 오래전부터 분쟁을 벌려왔다. 이로 하여 두 나라사이에는 불신과 대립이 조성되고 군사적충돌까지 일어나군 하였다. 그러나 두 나라는 대결과 충돌이 쌍방에 손해밖에 가져올것이 없다는것을 자각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뒤로 미루는 원칙에서 분쟁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진전을 가져오고있다.

인디아와 파키스탄사이에도 분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파키스탄과 인디아사이에는 카슈미르문제를 비롯한 해결을 기다리는 일련의 분쟁문제들이 존재하고있다. 최근시기 두 나라는 분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있다.

지난 2월 쌍방은 2008년 인디아의 뭄바이동시테로사건이래 중단되였던 포괄적인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난 4일 인디아는 파키스탄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지역인 카슈미르문제를 포함한 모든 현안문제들을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정식 밝혔다.

인디아수상은 《우리는 대화과정을 재개하기로 결심하였다. 우리는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것이다. 우리는 친선적인 대화와 목적의식적인 협상을 통하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려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인디아와 파키스탄사이의 력사적인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긍정적움직임이다.

분쟁문제들을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긍정적움직임들은 지역들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나라들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는데 유익하며 그것은 국제사회의 환영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충돌을 없애고 평화와 안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분쟁문제해결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다.

본사기자 채 일 출

심각한 노예로동

세계적으로 의연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있어 커다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있다.

25일 유엔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현재 그러한 사람들이 1 000만여명에 달하고있다고 밝혔다.

도시들의 물위기

세계적으로 도시들의 물위기가 더욱 심각해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있다.

22일 유엔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현재 세계도시인구중 약 1억 1 400만명이 상수도망을 통한 먹는물공급을 받지 못하고있다고 밝혔다.

또한 1억 3 400만명이 물부족으로 위생조건이 불비한 상태에서 생활하고있다.

신형독감피해

베네수엘라에서 A(H1N1)형돌림감기가 퍼져 피해를 입고있다.

22일 이 나라 보건성은 올해에 들어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00명의 신형독감환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조선중앙통신】

ㄱ-11060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 집 위 원 회